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4 2019

VOL. 274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S10e | S10 | S10+



Professional
Smart Camera



Cinematic
Infinity Display



Wireless
Power Share



Ultrasonic
Fingerprint

www.GalaxyLaunchPack.com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 Telp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 Indonesia

 @Samsung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Image simulated. The "S10" on the screen is graphic element for Galaxy S10e, S10, and S10+

TRANSFER FASTER

go korean

한결 수월해진 이동과 간편해진
수하물 처리는 여행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제2터미널만의 차원이 다른
환승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SKYTEAM

GoKorean.KoreanAir.com



자카르타 ↔ 서울 매일 운항
덴파사르(발리) ↔ 서울 매일 운항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박재한
편집인 : 김희년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윤홍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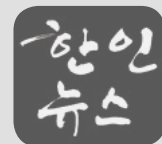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비판하기 쉬운 소수의 의견,
동조하고 싶은 허위의 담론이
어디에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현상을 보기에
마치 널리 퍼진 문제처럼 내세워
그 대상 전체를 동일한 문제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그로 인해 엉뚱한 곳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무명의 가해자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다면 판단을 보류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없는지 살피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듯 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례

- 20 신성철 칼럼 - "인도네시아에서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22 이해창 경제칼럼 - "이커머스 공룡들의 출현과 소상공인의 방하기 맞이"
- 24 [인터뷰] 그는 누구?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채영애 수석부회장
- 27 새봄에 띄우는 시 / 봄바람 <김준규>
- 28 재외국민 국적관련 신고 안내
- 30 경제뉴스 콕! 짚어보기 <편집국>
- 32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18
- 36 월간뉴스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40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임수지>
- 42 자카르타 맛집탐방 <주윤지>
- 44 4월의 행복에세이 <엄재석>
- 48 JIKS 소식
- 50 건강칼럼 <재인니 대한체육회>
- 54 나바수 <민선회>
- 59 JIS 소식 <신재우>
- 60 인도네시아 토지법 (272) <이승민>

한인사회 이모저모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취임식 8
- 평화걷기대회 12
-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15
- 3.1운동 100주년 기념 축제 한마당 16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 17
- 노동부, 인니 한인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19
- '역사 속으로' 문화체험 47
- 경북 대구광역시, 인니 진출 가속화 49
- 한국유학 특강 개최 53
- 미래를 도전하는 사람들 58
- 코원 충전 프로젝트 63
- 제5차 MAJA SATU LANGKAH 64
- 코린도 기업 문학특강 65



3.1 운동 100주년, 평화행진 (2019.3.3)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IG:@dqdoodle]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이·취임식

- 제6대 박재한 한인회장 취임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19년 3월 28일 11시, 대사관 강당에서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 6대 한인회의 출범을 알리고 새로운 한인회장을 맞이하는 이 행사는 대사관, 한인회 임원 등 많은 한인사회 주요인사와 한인동포들이 참석하여 박재한 한인회장과 집행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김창범 대사는 “지난 3년간 한인회와 함께 준비하고 협동하여 여러 행사들을 잘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양영연 전 회장님의 리더십 덕분이었다. 한인사회가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원로 지도자님들께 감사드린다. 새로운 도약의 미래를 여는 하나 되는 한인회로 박재한 회장님이 이끄시리라 생각한다. 한인회와 대사관이 2인 3각하는 자세로 함께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 며 신임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양영연 전 한인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3년간 한인회와 행복한 동행이었다. 한인사회에 작은 기여

라도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고 “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가 아닌 ‘우리가 맞다’ 는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는 제 6대 회장단이 되길 바란다” 며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한인회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양영연 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김종헌 신임수석부회장의 한인회기 입장으로 한인회기가 5대 양회장에서 6대 박재한회장에게 이양됐다.

신임 박회장은 취임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한인회는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이어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한인들의 한인회를 향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인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겠다” 며 “제 6대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 한인회가

和

通



필요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고 축사했다.

신임 수석부회장(손한평, 김희년, 김종현, 채영애)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혼성4중창단의 ‘산 넘어 남촌에는’, ‘고향의 봄’ 축하 공연과 시루떡 커팅 후 사진촬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서 19개의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동포사회의 다양한 특별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되도록 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기업 명예고문은 “낮은 자세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존경받는 한인사회가 되기 위해 법을 준수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한인목회자협의회 김종성 회장은 “시간은 기회이다. 3년 동안 한국인들을 섬기는 자세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나오된 자나 도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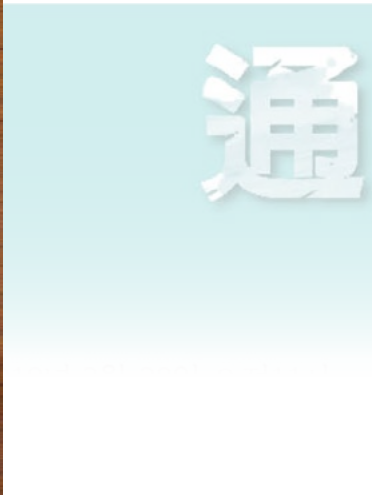


신임 수석부회장: 좌로부터 김희년, 손한평, 박재한회장, 채영애, 김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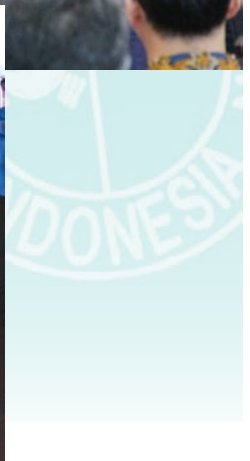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취임식
 5대회장 이임 양영연 6대회장 취임 박재한
 일시 : 2019년 3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대강당



혼성 4중창단: 좌로부터 황윤숙, 김영희, 신돈철, 박준희, 김종규



3.1 운동 100주년 평화걷기대회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3월 3일 일요일, 3.1 운동 100주년 평화걷기대회가 많은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디르만에서 펼쳐졌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교장 백우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동남아 남부협의회(회장 송광중)가 주관하고 주인도네시아 대사관(대사 김창범)이 후원한 평화걷기대회는 시작부터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을 포함한 한인동포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재한 한인회 회장은 “독립의 뜻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고 남녀노소가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의 물결을 만들었던 그날을 오늘 자카르타 한복판 수디르만에서 기쁘게 재현해 보자”라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김창범 대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부여했다.



독립선언서에 뜻을 같이 한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우신재(BIS.13)학생의 독립선언문 낭독, 삼일절 노래 제창, 한인회 김우재 명예고문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외치는 순으로 1부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걷기대회에는 유관순열사를 상징하는 8명의 JIKS 여학생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고 사물놀이의 힘찬 연주를 들으며 태극기를 든 한인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이 함께 행진하였다.

걷기대회에 참석한 한인동포 구정희씨는 “가정을 이룬지 얼마 안 됐는데, 부부가 되어 이런 행사에 함께 와보니 새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동포로서 강하게 느껴진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이 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6시 30분부터 한인단체들과 JIKS학생들의 후원과 각계 한인동포, 한국의 민주평통 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의 참여로 우천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분위기로 이끌었다.





사진제공:아딧



사진제공:아딧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지난 3월 1일 자카르타 라플레스 호텔에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창범)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각계각층의 한인동포와 한인사회 주요 인사를 초대했다.

3.1 독립운동관련 각종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으로 채워진 100주년의 기념식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12명의 독립운동고려독립청년당, 암바라와 3인 의거 관련 사진전과 한국문화원의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포스터 & 삽화 공모전 수상작 등이 전시되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고 이상문 열사 조카 이후형 대표의 만세 삼창 선창으로 다함께 만세를 외칠 때에는 한인 동포의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전역에 피는 모티브인 한지 공예로 만든 ‘지도에 나라사랑 희망의 메시지’는 포토 존이 되었다.

이날 행사는 JIKS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 JIKS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JCC어린이합창단, 자카르타 아버지양상블, 아르떼합창단, 윈드오케스트라, KISO 스트링 오케스트라, 한인무용단, 한바패, 국악사랑, 거문고 연주 등 많은 한인동포가 참여한 공연으로 풍성한 축제의 장을 펼쳤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축제 한마당

3월 3일, 롯데쇼핑에비뉴 메인 아트리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축제 한마당’ 이 한국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배연자) 주최로 많은 한인단체와 각계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들이 가득 자리를 메웠다.

기념식으로 시작한 1부 행사에서 배연자 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며 화합을 이루어나가자” 고 말하고 이 행사에 출연하고 참석하는 인도네시아 대학생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했다.

김종민 총영사는 “우리와 인도네시아의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견딘 역사 인식의 공통점이 있다” 며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을 이어가자” 고 말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우리 문화 속에서 보여 지는 정신에 내재된 근성과 그것을 보듬는 내면의 힘으로

자유로움 속에서 생성되는 강인함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3.1운동의 정신” 이라고 말했다. 삼일절 노래 제창과 한인회 김우재고문의 3.1절 시낭송과 만세 삼창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식전 행사로 한인어린이들의 태극기 태권도 시범(지도: 나진영 Kart Studio), 설장구(민음교회),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독립군가 깃발춤(지도: Didin Samsudin/UPI)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한인사회의 화합을 기원하는 각 한인단체의 기수단 입장식과 열린 브라스밴드(단장 설혜선, 지휘자 전훈)의 우리 귀에 익은 고전과 가요메들리 연주를 들었다.

이어 2부 행사로 인도네시아 대학생의 삼일절을 주제로 한 유창한 한국어 소감발표(Dinar Nabila Andani/ UI외 3명)와 열정적인 K-pop 댄스 공연(H girl 팀외 2팀)이 많은 인도네시아 관객의 호응 속에 펼쳐졌다.

즉석에서 열린 대한민국그리기대회 시상으로 대 단원의 막을 내렸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



2019년 3월 4일(월) 오후 자카르타 시내 아트마자야 대학교 (Universitas Katolik Indonesia Atmajaya)에서는 처음 교민사회가 형성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양국 역사전문가들이 100년 전 한국에서 벌어졌던 3.1운동을 강당에 만장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듬해인 1920년 바타비아에 도착한 독립운동 망명객 장윤원 선생의 일생과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게 강점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고려독립청년당의 의거, 인도네시아 PETA 군인들의 무장봉기로 이어지는 네 시간 동안의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놀라운 관심과 집중력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주최하고 한-인니 문화연구원과 현지 역사연구단체 야야산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Yayasan Historika Ind)가 주관하며 아트마자야 대학교가 후원하여 학내 유스티누스 건물 15층 3백석 규모의 강당에서 열린 이날 기념 세미나엔 백 수십 명의 인도네시아인 학생 외에 교사, 교수들이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여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UPH 대학교 경영학부 김성석 교수, 한국학 전공UI 대학교 로스티뉴 교수, 교민사에 정통한 향토 사학자 김문환 선생, 마잘라 히스토리리아 기자 헨디 조의 흥미진진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배동선 작가와 홍보전문가 빵에란 누르딘 씨가 각각 엠씨와 모더레이터로 세미나의 진행을 도왔습니다.

행사 장소로 선택된 아트마자야 대학교는 인도네시아 첫 교민으로서 파란의 시대를 살다 간 장윤원 선생의 차남 장순일씨가 설립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 현지 동포들에게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학내에 그의 이름이 붙여진 폴 초(Paul Cho) 강의동에서는 이날도 여전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조영 공사와 아트마자야 대학교 아구스티누스 뿌라스티안또꼬 총장이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축사를 낭독하면서 시작된 세미나는 참석자의 90% 이상을 차지한 인도네시아인들에 맞춰 발표는 물론 사회와 질의응답 모두 시중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국주의시대 역사인식에 늘 일정한 온도차를 보이던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항일투쟁이란 접점에서 만나 앞으로 보다 진지하게

민간차원에서 학술적으로 서로의 역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첫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에게 3.1 운동은 생소한 한국 역사여서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 한 두개 있었지만, 대부분 질문들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3.1 운동 정신이 어떻게 한국의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 왜 장순일 씨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트마자야 대학교를 세우게 되었는지, 한국인들의 독립 운동이 어떻게 한반도를 넘어 이국 땅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탄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역사분야 독보적 존재였던 김문환 선생에 이어, 이날 관객들 질문 대부분에 차분하고도 막힘없이

답변한 김성석 교수가 향후 교민사회 역사담론을 이끌어갈 차세대 에이스로서의 위상을 굳힌 것도 세미나의 큰 소득이었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처음 제기된 아이디어로 태동한 이 기념 세미나는 5개월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아깝지 않을 만한 훌륭한 행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배동선(한인니문화연구원 특임(역사) 연구원)



노동부, 인니 한인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인의 임금체불 사건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지에서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3월26일 자카르타에서 ‘2019 한인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과 현지 한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현지 한인기업 최고경영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인도네시아 노동법규와 파산·청산 절차,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서(西)자바 주의 봉제기업 SKB의 한국인 대표 A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한 사건도 거론됐다.

송창근 KOCHAM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SKB의 사례를 거론하며 “피할 수 없었던 사건 같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해당 지역의 임금경쟁력이 사라졌고, 노동집약적 사업은 더욱 그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천500여개 한인기업 상당수가 이미지 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교훈 삼아 기업윤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한인기업과 한인사회가 높은 과고를 만났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이 세미나가 기업운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오전 무하맛 하니프 다키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을 만나 SKB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10월 잠적해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SKB 대표 A씨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5천만원을 마련해 송금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원은 내달 22일 SKB의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한국 노동인권단체와 연대해 SKB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주류 언론은 올해 1월 24일 CNN인도네시아가 SKB의 임금체불 사태를 보도한 것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아직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제공: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에서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장면1 : 아이들은 조잘거리며 엄마-아빠와 영어로 얘기하고, 아이의 부모와 할머니는 인도네시아어로 대화한다. 정작 아이들은 모국어인 인도네시아어를 잘못해 할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장면2 : 2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수다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다가 인도네시아어로 말을 바꾼다. 절묘하게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를 7:3으로 섞어서 의사소통을 한다.

장면3 : 종업원이 영어로 말을 건네며 주문을 받으려 하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인도네시아어로 주문을 한다. 이 같은 풍경은 자카르타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공공장소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역동적이다. 자카르타를 비롯한 대도시에선 더욱 그렇다. 인도네시아는 2억6천만 명이 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 세계 최대 섬 나라이며 300여 종족과 500여 지방어가 공존하는 특성상 국가통합을 위해 인도네시아어 교육을 강화해왔다. 특히, 32년 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 정권 때는 모든 표기를 인도네시아어로 하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로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와 개혁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치, 경제와 사회·문화 등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맞는다. 1999년 개혁시대를 연 압두라만 와히트(일명 구스두르) 대통령이 다원주의를 주창하며 중국문화를 비롯한 외국문화에 대해 규제를 풀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사립학교가 급증하고 영어교육 열풍이 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어교육 열풍이 모국어를 위협할 지경이라며 국가통합 기반인 인도네시아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훗날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이 된 수카르노를 비롯한

젊은 독립운동가들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시대인 1928년 제2차 청년회의 폐막 때 선언한 ‘청년의 맹세’ (Sumpah Pemuda)에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를 채택했다. 이 언어는 표준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인도네시아 독립에 크게 기여한다. 수카르노에 이어 정권을 이어받은 수하르토는 보다 철저한 인도네시아어 교육을 실시했다. 수하르토 집권기에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언어가 인도네시아어였고, 영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어의 위상이 추락한 것은 국가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건국 70년을 훌쩍 넘어선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초연결 4차 산업혁명시대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국내 교육환경이 열악한 때인 20여년 전만해도 인도네시아 상류층은 자녀들을 호주, 미국 및 유럽 등지로 유학을 보냈고, 이들이 성장해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혁시대 이후 경제가 6%대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중산층이 확대돼 영어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교육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중상층 이상에서는 영어실력이 사회적 지위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영어가 상류층의 언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 후 20년 동안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 수백개가 문을 열었고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학교는 원어인 교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내국인을 고용해 부족하지만 많은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일상에서 영어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영어 사용 확대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과 비즈니스는 물론 외국인이 관계된 다양한 행사에서 공무원들은 영어로 소통하거나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서툴지만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한국인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인도네시아어는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는 만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알파벳에 익숙해서 쉽게 영어와 친숙해 질 수 있다. 영어에서 차용한 인도네시아어 어휘도 많고 영어와 어순도 비슷해 영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있어서 영어 학습환경은 우리보다 낫다.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의 영어교육은 시험용인 만큼 실용성 면에서는 떨어진다. 또 영어로 말하면 잘난 척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어학습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콩글리쉬(Konglish, 올바른 표현 broken English) 있듯이,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식

영어인 싱글리쉬(Singlish)가 있다. 싱글리쉬는 호키엔어(중국어 방언)와 말레이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어 어순에 특유의 억양과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이 또한 의사소통 수단인 만큼 잉글리쉬(Inglish, 인도네시아식 영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들이 영어를 잘 구사할 경우 얻는 혜택은 많지만 두가지만 들자면, 먼저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영어로 소통해 현지 사회의 중상류층과 소통하고 이를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이끌 수 있다. 20여년 전만해도 인도네시아어는 희소언어로 여겨졌고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인도네시아어를 잘 하는 사람이 취업도 잘 되고 사업에서도 성공 확률이 높았다. 지금은 업무든 휴가든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국경을 넘나들며 사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들에게는 국제공용어인 영어와 현지어인 인도네시아어가 양쪽 날개다.



리테일 생태계의 변화 "이커머스 공룡들의 출현과, 소상공인의 빙하기 맞이"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쿠팡, 인도의 스냅딜, 일본의 야후쇼핑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토코페디아 등은 모두 각국의 이커머스(e-commerce) 대표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모두 제일교포 출신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투자한 기업들이기도 하다. 때론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미래 산업의 판도를 내다보는 남다른 안목으로 현재 세계적 투자자로 우뚝선 손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대상으로 토코페디아를 선택했다. 토코페디아는 2013년, 손회장이 최초 투자했던 때와 비교하여 현재 기업가치는 50배 이상 성장하여 이제 약 8조원에 육박한 만큼 더이상 '스타트업기업'이라 부르기도 어색할 정도로 명실상부 인도네시아 대표기업으로 성장했다.

몇 해전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진출에 적극적이었다. 구글과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5년 880억 달러 즉 원화 9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시장 규모 대비 16배나 성장한 수치이다. 아울러 맥킨지 컨설팅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향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2017년 기준 전체 소매 유통량의 2~3% 수준에 불과 했던 전자상거래 거래량이 2020년에는 그 비중이 8%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 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배경은 무엇일까?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소득 상승 그리고 해당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이 그 배경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 절반이 넘는 약 1억 5천만명이며 스마트폰 보급율은 30%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모바일 페이스북 사용자의 수는 약 6천300만 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유난히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는데 최근 공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모바일인터넷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3.5시간으로 미국인들의 일평균 사용시간인 1.7시간의 두배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코위 정부의 노력도 이커머스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데, 조코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최대 이커머스 마켓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이미 제시한 바 있으며 중국 전자상거래 제왕인 마윈 회장을 인도네시아 경제고문으로 위촉할 만큼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온라인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제시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시 지분보유한도를 완화

하여 IT기업에 한해 1,000억 이상 투자 건에 대해서는 외국지분의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기업들의 탄생과 물류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우려스러워 하는 시선들도 많다. 리테일 생태계의 변화가 소상공인의 몰락과 사회적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실례로, 과거 필자가 살던 동네에는 슈퍼마켓, 정육점, 지업사, 과일가게, 양복점, 세탁소, 철물점, 이발소, 미용원 등이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골목상점들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나름 모두 사장님, 사모님이라 불리우는 자영업자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인근에 대규모 상업지구와 함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가게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으며 과거의 사장님 사모님들은 인근에 새로 입점한 대형마트의 캐쉬어나 빌딩 또는 아파트의 경비원, 청소부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20년, 과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위협했던 한국의 대형마트들은 편의점 및 이커머스에 밀리며 벌써 7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대신, 퇴근 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 현관문 앞으로 물품이 배

달이 되는 지금, 대형마트들은 온라인사업에 집중하며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이다. 유선을 거쳐 모바일로 이동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통신시장은 유선시장을 건너 뛰고 무선시장으로 본격 성장했는데 인도네시아의 리테일 시장 또한 그 생태변화의 속도는 한국을 능가하여 통신시장과 같은 양상으로 흘러 가고 있는 듯하다. 기존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 ‘라자다’와 ‘토코페디아’가 시장 장악을 위해 대격전을 벌이고 있는 최근 몇년사이 불과 2~3년 전만해도 잡화 및 의류 판매점이 제법 많았던 필자 사무실 근처의 한 상가건물은 작년부터 문을 닫는 가게들이 눈에 띄게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골목상권이 대형마트에 잠식되었다면 인니의 자영업자들은 할인마트를 건너 뛰고 바로 이커머스 공룡들에 의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코페디아는 ‘고젝’과의 협업으로 주문의 25% 이상을 당일 배송 중인 바, 인니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고젝, 그랩 등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과거 루포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거둬되는 소비패턴과 산업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커머스의 파괴력은 가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물류시스템의 발전 덕으로 이커머스는 거리와 지역의 개념을 파괴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만 살아남게 하는 살벌한 경쟁의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의 자취 시절 항상 덩으로 비닐 봉지에 사과하나 더 담아 주시던 과일가게 아주머니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채영애** 수석부회장



♪ 노래와 함께 하는 한 기쁨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1. 인도네시아에 정착하게 된 스토리

1975년 인도네시아로 오게 된 남편(한인회 이호덕 고문)을 따라서 1979년 4살, 1살된 두 아이를 데리고 자카르타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이었지만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같아요. 벌써 40년을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이 꿈만 같네요.

2. 여러 단체에서 활동했던 지난 이야기

우리 집에서 유치원을 열어서 85년도 1년 동안 운영하다가 한인연합교회의 아기학교로 영입되어 1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 부인회를 맡아서 패션쇼, 밀알학교, 골프대회 등의 행사를 했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 2기로도 활동했습니다.

3. 요새 특별히 즐겁게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아르떼 여성합창단장으로 다양한 나이대의 단원들과 함께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는 단원들이 고맙고 제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4. 한인동포 행사 때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무대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호호~ 전문적으로 성악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57세에 도전했어요. 힘이 들었지만 보람 있고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되었답니다.



5.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미래의 계획이 있다면...

이건 진짜 그저 꿈일 수도 있지만... 연주 전용 홀을 만들어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인동포들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6. 좌우명이나 인생철칙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자’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혜로울 수 있다면 그건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 탓인 것 같습니다.

한인뉴스 편집팀은 3월 26일, 자카르타 그란 벨리아 호텔에서 채영애 수석부회장을 만났다

7. 미래를 위한 준비가 있다면...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도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과 시간과 마음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8. 건강하고 활기찬 외모를 유지하는 팁이 있다면...

거울을 자주 봐요.. 호호호

요새 유튜브를 보면서 집안에서 제자리 뛰기를 숨이 찰 때까지 하고 있어요. 가끔 남편과 골프도 치고 산책도 하고 무엇보다 노래와 함께 하니까 정서적으로 늙지 않는 것 같아요.

9.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

이번에 여성분과장으로 한인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봉사단체와의 연합으로 여성 회원들도 늘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한인여성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호덕 고문과 함께

봄 바람

김준규/ 시인



봄이 오면
누군가 보고 싶어
공연히 설렌다

꽃잎을 흔들며
다만 스치는 몸짓은
부질없는 모멸인가

떨치지 못한
비늘 같은 노여움

사월은 낫술을 마시다가
꽃향기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들고

잔설 속에 갇혀
가쁜 숨을 내 쉬던 꽃망을
어느 햇빛 좋은 날

진한 향기 흘리며
잠시 머물다 떠나갈
사랑이라도


봄이 오면 누군가 보고 싶어
묻어둔 그리움

너는 모른 채 하고
지나갈 테지



.....

고국의 4월은 봄이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설렌다. 사람으로서 따뜻한 것에 대한 동경. 과거나 현재, 딱히 누군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보고 싶은 계절이다. 우리가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관념으로서 형이상으로서 로망으로서 잡히지 않는 누구이다. 절대적 그리움이다. 시인은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만 봄바람은 이런 시인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간다. 계절은 시간은 인생은 이렇게 흘러간다.

-공광규/시인-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8년 4월에는 미주 동포사회에서 국적선택기간을 놓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 위 청원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국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종걸 의원이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적관련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지 교민단체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는 한편, 작년 11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개설하여 최신 국적관련 정보를 공지하고 있으며, 현재 1만 2천여명이 친구맺기를 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검색해 플러스 친구를 누르기만 하면 가입되고,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공지된 내용 중 특히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 신고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국적선택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22세 되기 전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 불행사서약)를 하여야만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한 이후부터 2019년 3월 31일 전까지” *입니다.

* 간혹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생직후부터” 신고가 가능함에 유의

(국적상실신고)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복수국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되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는 없나요?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입양, 인지 또는 수반취득 등으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적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내부 검토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적관련신고 안내문 참고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1 국적선택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2 국적이탈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까지
-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 ※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3 국적상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4 국적보유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만 20세 미만자는 만22세 되기 전에, 만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검색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 문의전화: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

국적종합정보
친구추가 ↓





■ 3월의 헤드라인 ■

첫째 주

- 정부 호주와 CEPA 서명. 인도네시아 수출품 관세 100% 면제
- 최대 택시업계 블루버드. 전기자동차 (EV) 도입 계획. 도입 첫해 45대
- 마타하리 백화점. 2018년도 순익 42% 감소
- 2019년 법인세 22% 증세 목표. 법인세 납부율 인상에 총력
- 뽀르따미나 모잠비크에서 LNG수입. 2024년부터 20년간
- 세계 부호 랭킹 인도네시아 20명 포함. 1 위 자문그룹 부디 하르또노
- 중국섬유기업 인니 7조루피아 투자. 뽀르와가르또 외 1곳 공장건설
- 2018년 가구 수출액. 전년대비 4% 증가한 16억9천만 달러
- 알파마트. 금년 500점포 신규 오픈. 전년 말 기준 총 13,679점포
- 휴대통신 [3- Tri] 2019년도 4G 기지국 8천개 신설 (총25,000기지국)
- 화장품 [마루티나 펄랄] 2019년 설비투자 320억루피아 전년대비 2배.
- 안팎 광업. 2018년 순익 6.4배 증가 8,774억루피아. 금, 니켈 판매증가

둘째 주

- 자동차 사치세 개정안 승인. 전기차 면세 방침. 재무장관
- 5G 주파수 2020년도 입찰 실시
- 외투 광업 5개사. 연내 인도네시아로 주식 양도
- 인니 남녀 임금 격차 32%. 평등 위해 노력. 재무장관
- 인도네시아 레이팅 [BBB-안정] 유지. 핏치사
- 미쓰비시자동차. 2019년 판매 목표 15만대 계획
- 소프트 드링크 생산량. 2019년도 3% 증가 예상
- 중국우렁자동차. SUV [아르마스] 현재 예약대수 1,000대
- 립뽀그룹- 실로암병원 2019년 설비투자 2천억루피아 전년대비 2배
- 미국 홈센타 장비 [에이스] 마티운에 179번째 신 점포 개점
- 자동차 운행 홀짝수 규제. 데벙시도 조만간 실시
- 이슬람계 정당 개발통일당 당수. 수뇌 혐의 체포. KPK

셋째 주

- 1분기 GDP성장률 4% 둔화세. 수입 감소와 제조업 정체
- 수도권 주요 도로 통행료 자동 징수 (ERP) 연내 도입
- 공무원 급여 4월부터 5% 인상. 대통령 13일 서명. 재무부
- 2019년 2월 기준. 재정 수지 적자 54.6조루피아. 재무부
- 수도 자카르타 2019년 성장률 6.0~6.4% 예상. 중앙은행
- 2014~19년 완성 댐 건설 계획 65개. 금년 말까지 완공은 29개
- 실업 급여 연내 개시. 2만명분 2,950억루피아 예산 확보. 노동부
- 인도네시아 첫 지하철15.7 Km (지하 6 Km) 완공. 조코위 대통령 참석
- 수도 지하수 이용 2020년 중지. 지반 침하 우려. 공공사업상
- 라이온항공.연내 30% 기업공개 (IPO)로 10억달러 조달 계획
- Medco. Ophir(UK) 전유통주식(18.73%) 408.4백만파운드에 매수
- 살림그룹 인도푸드. 2018년 순익 4조1661억루피아 (2.2% 증가)

넷째 주

- 꼬라까따우 스틸. 생산, 기술 담당 임원 뇌물 혐의 구속. KPK
- 인도네시아인 싱가포르 부동산 구입 3년전부터 감소 추세
- 국영전력 PLN. 금년 글로벌 미화 채권 20억불 발행 계획
-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 터미널2F. 5월1일 저가항공 전용화
- 2019년도 직접투자 둔화 예상. 대선, 세계 경제 감속 영향. BKPM
- 자카르타 - 반둥 142 km고속 열차. 토지수용 94%. 2021년 완공목표
- 국영3사 (WIKAWI) 아프리카 철도프로젝 (1,000Km) 수주 협력 MOU
- 브카시 쓰레기 소각 발전소 완공. 일 소각 100톤, 발전량 750 Kw, 총공사비 980억루피아. 향후 12개 도시에 추가 건설
- 국영 만다리은행 브르마따은행 매수 승인 방침. 국영기업부
- 2018년 범죄 관련 자금세탁 21,690건. 전년대비 47.5% 대폭 증가
- 개인투자자용 이슬람국채 발행 21조루피아. 목표 2배 달성
- 블루버드 택시 2018년 순익 4,600억루피아 (전년대비7.6% 증)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3월 1일 족자 총공격 기념비

지난 호에 이어

회의를 마친 각 지역 지휘관들과 민간관료들은 자기 임무처로 돌아가 맡은 바 준비를 시작했고 1949년 2월 18일 수디르만 장군과 제2 지역군 사령관 가똏 수브로또 대령에게도 이 회의결과가 전달되었다. 밤방수경 대령의 전령들은 물론 방방수경의 동생과 주치의, 운전병들과 군정주지사 집무실의 직원들이 백방으로 달려 제10여단장 수하르트 중령, 정치교육부 위요노 대령, 바나란의 부참모총장 시마뚜빵 대령, 바끄룬 대령, 마글랑에서 들어올 네덜란드 증원군을 차단할 제9여단장 아흐맛 야니 중령 등에게 연통을 돌렸다. 1949년 2월 19일 밤방수경 대령, 후따갈롱 중령과 부관, 수하르트 중령과 부관 이렇게 다섯 명이 떠나가시촌의 논 한가운데 원두막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밤방수경 대령은 수하르트에게 2월 25일에서

3월 1일 사이 족자공격을 명령했고 정확한 날짜는 위요노 대령 등의 준비상황을 확인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얼마 후 공격일시가 3월 1일 오전 6시로 확정되고 제3방어선 방면 수하르트 중령의 제10여단을 주력으로 전방위적인 족자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공화국군은 공격 직전 족자의 술탄 하맹꾸부위노 9세의 양해를 얻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족자가 끄라이작전으로 네덜란드군에게 함락된 후 실질적인 연금상태에 있던 술탄은 은밀하게 전달된 공격계획에 크게 기뻐했다. 공화국군의 대규모 공세는 제3 지역군 전역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그 쫓점은 제9여단으로부터 1개 대대를 지원받아 증강된 제10여단 병력의 족자공격에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밤방수경 대령은 제1방어선의 바크룬 중령, 제2방어선의 사르비니 중령에게 마글랑의 네덜란드군을 공격하도록 명령했고 그와 동시에 가똥 수브로토 대령의 제2 지역군도 솔로의 네덜란드군을 공격해 족자에 지원군을 보낼 수 없도록 했다. 이 모든 작전을 조율할 야전사령부는 무토(Muto) 마을에 차려졌다.

총공격 전날 밤 소수의 공화국군이 족자시내로 침투해 머르데카 호텔로 향했다. 그들은 외신기자들 앞에 설 젊은이들이었다. 그리고 아침 6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족자에 대한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수하르토 중령은 서부의 말리오보로 지역까지를, 동쪽은 펜제 수무알 소령, 남쪽은 사르디오노 소령, 북쪽은 꾸스노 소령의 부대가 각각 맡아 공격을 펼쳤고 도심 시가전에선 아미르 무르또노 중위와 마즈두끼 중위가 발군의 지휘력을 발휘했다. 벼락같은 공격으로 족자를 탈환한 공화국군은 여섯 시간 동안 도심을 장악하고 있다가 마글랑과 암바라와, 스마랑으로부터 네덜란드 증원군이 속속 도착하여 반격해 오자 12시 정오에 일제히 퇴각하기 시작했다. 솔로에 대한 공격도 계획한 성과를 내, 네덜란드군은 대규모 공격을 받고 있는 족자에 지원군을 보낼 수 없었지만 제9여단의 게릴라들은 마글랑에서 들어오는 네덜란드 증원군에게 결국 패퇴하면서 길을 내주어야 했다.

이 전투로 네덜란드 측은 경찰 3명을 포함, 총 6명이 사망, 14명이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고 공화국군이 물러난 후 족자 시내에 다시 일반차량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시장도 열리는 등 금방 일상으로 돌아갔다. 네덜란드의 중부자바 지역군 사령관 메이어 장군과 지역자문관 앙겐트 박사, 족자 주둔군사령관 반랑젠 대령 등은 이날 12시 정오 꼬라똥궁의 술탄을 방문해 공화국군의 공격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측은 53명의 경찰관들과 300여 명의 병사들이 전사했고 민간인 희생자들의 수는 집계하지도 못했다.

사상자 숫자만 본다면 이전의 여지없는 네덜란드의 압승이었다. 하지만 이제 네덜란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그 군대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공화국군이 얻어내고자 했던 전략적 목표였다. 족자 총공세는 공화국군 측의 가혹한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 1949년 3월 1일 족자총공격 사건은 1970년 초반까지만 해도 독립전쟁 중 있었던 암바라와 전투나 반동불바다 사건 등과 대략 동급으로 취급되다가 수하르토가 대통령에 등극해 장기집권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영웅화가 진행되자 이 사건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며 역사적 사실들이 일부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심지어 수하르토가 이 사건을 기획하고 각 지휘관들에게 임무를 나누어 주었다는 버전까지 존재하지만 그날 족자와 솔로, 마글랑에서 함께 싸웠던 다른 지휘관들에 비해 수하르토가 특별히 더 주도적이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사실 미약하다. 게다가 전군사령관 수디르만 장군 - 부참모장 TB 시마뚜빵 대령 - 자바 사령관 나수티온 대령 - 제3 지역군 사령관 밤방수경 대령 - 제10여단장 수하르토 중령으로 내려오는 군명령체계가 엄연히 존재했던 바 이들이 각각 맡았던 역할의 비중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수까르노의 귀환

이렇게 수디르만 장군 휘하의 공화국군이 절대적 화력 우세를 앞세운 네덜란드군에게 게릴라전으로 항전하고 있을 때, 수까르노와 공화국 정부각료들은 수마트라 동쪽 방카섬 수도인 꼬따 빵갈 빼낭에서 133km 떨어진 먼뚝, 또는 문뚝이라 불리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다. 먼뚝은 1913년 이전엔 약 200년간 방카섬의 수도였던 곳이었다.

그들이 족자에서 네덜란드군에게 체포되던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족자를 함락시킨 네덜란드군이 공화국 멸망의 증빙으로서 찍었던 동영상과 사진들 속에서 수까르노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여유를 보이려 했지만 긴장하여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방카섬에 유배된 그들은 비록 네덜란드군의 감시를 받았지만 머눔빙 언덕과 먼쪽 숙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인도네시아 국기를 게양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공화국군 게릴라들처럼 포탄과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장에서 사선을 넘나들 필요도 없었고 굶주린 배를 끌어 안고 애써 잠을 청할 필요도 또한 없었다. 그들은 유배기간 동안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단련에 힘쓰며 PORI란 약칭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체육연합’이란 것을 만들어 운동 전에 인도네시아 국기와 비슷한 PORI 깃발을 게양하면서 그것이 네덜란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항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수디르만 장군의 게릴라들이 생명을 담보로 치열하게 투쟁하던 시기에 수까르노와 각료들은 그런 식의 저항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카로 유배된 사람들은 수까르노와 하타 외에도 아구스살림 외무장관, M 로엠, 알리 사스트로아미조요, 수리아다르마 공군사령관, 뿌링고디도 등이 있었다. 그들은 1948년 말부터 1949년 중반까지 각각 5개월에서 7개월 가량 방카에 머물렀다. 숙소건물의 중 방 한 개는 특별히 네덜란드 측과의 협상을 위해 사용되었다. 방카는 네덜란드가 공고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점령지였지만 수까르노 일행이 방카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현지인들의 독립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수까르노는 1949년 2월 21일자 일기에 방카주민들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합류를 희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와 로엠-반로엔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약에 의거 네덜란드군대를 1949년 7월 5일 족자에서 철수시키자 수까르노 일행은 방카주민들과 작별을 고하고 족자로 돌아갔다. 그들이 방카 먼쪽에서 지냈던 숙소는 오늘날 여인숙이 되어 있고 그 앞엔 수까르노 일행의 현지 유배를 기념하는 뚜구 봉하타(Tugu Bung Hatta)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것이 수까르노 기념비가 아닌 하타 기념비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어쩌면 하타가 수마트라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족자로 돌아간 수까르노는 자신의 계산대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또한 자신 스스로도 열악하기 그지없던 유배상황에서 최선의 정치력을 발휘한 결과 네덜란드와 외교조약을 통해 아무도 피흘리지 않고 네덜란드군을 족자에서 철수시키는 성과를 얻어 냈다고 생각했다.



유배중이던 수까르노 일행의 먼쪽 숙소와 유배기념비인 뚜구 봉하타



수디르만을 포옹으로 영접하는 수카르노

그래서 그와 그의 각료들이 크라이작전 당시 네덜란드군에게 항복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고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마침내 구원받은 것이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깊은 생각 없이 그러한 수카르노의 수사를 받아들이며 정부의 귀환을 기뻐했고 인도네시아 전역은 축제분위기 속에서 흥청거렸다. 하지만 수카르노도 딱 한 사람 앞에서만 떳떳하기 어려웠다. 그건 바로 수디르만 장군이었다.

족자가 함락되던 날 대통령과 각료들을 찾아와 족자탈출과 게릴라전 참전을 요구했던 수디르만이, 주저하던 자신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용렬함을 읽었다는 것을 수카르노는 알고 있었다. 함께 항복하여 후일을 도모하자던 수카르노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돌아간 수디르만 장군이 그 쇠잔한 육체로 고통받으면서도 남은 공화국군을 이끌며 그동안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항전과 반격을 되풀이 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혼자 옳은 길을 갔던 강직한 부하의 상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었고 수카르노는 그에게서 일말의 열등감을 느꼈음은 두말한 나위 없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오래전 일제에 철저히 부역했던 그는 일제강점기를 항일투쟁으로 점철했던 수단 샤리프와 아미르 샤리푸딘에게서 느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열등감과 죄책감을 뒤집어 없애기 위해서, 수카르노는 공화국 정부가 족자로 돌아온 후에도 족자 합류를 거부하며 소보에 남아 있던 수디르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러 들여야만 했다. 결국 분노의 양금을 내려놓은 수디르만 장군이 그동안 자바섬에 정착시킨 군정 체제를 수카르노의 민간 정부에게 이양하기 위해 족자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궁 앞까지 마중나온 수카르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수디르만 장군을 뜨겁게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백 마디 변명보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족자에서 스스로 네덜란드군의 포로가 된 비겁한 지도자가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게릴라 항전을 수행한 수디르만 장군의 노고를 치하하는 국군통수권자의 면모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사람들은 그가 수디르만에게 항전을 명령하고 자신은 적진 한복판에서 외교력으로 네덜란드와 담판을 짓기 위해 스스로 포로가 된 영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수디르만 장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수카르노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겠지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막바지에 이른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제 영웅들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바야흐로 정치가들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2019년 3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도네시아, 안전성 우려 'B737 맥스 8' 자국내 운항 영구금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신형 여객기 'B737-맥스(MAX) 8'의 자국 내 운항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19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부디 까르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미연방항공청(FAA)의 B737-맥스 운항 중단 결정이 발표된 이달 14일부터 발효됐다고 전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부터 인도네시아내 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잉 737-맥스 8 여객기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전수조사한 결과도 운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선 국적 항공사인 가루다항공이 보잉 737-맥스 8 여객기 1대를, 저비용항공사 라이온에어가 13대를 각각 보유·운영하고 있다.

부디 장관은 “라이온에어와 가루다항공도 보유 중인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보잉 737-맥스 8은 2017년 5월 처음 상업 운항이 이뤄진 보잉의 최신 기종이다.

하지만, 이 기종은 작년 10월 말 라이온에어 소속 여객기가 이륙 13분 만에 추락한 데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 항공의 동행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하는 등 짧은 기간에 두 차례나 대형 사고를 겪었다.

두 사고기는 모두 보잉으로부터 인도받은 지 2~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기체였다.

라이온에어 여객기는 실속(失速) 방지 장치가 오작동해 기내 컴퓨터가 반복적으로 기수를 내리는 바람에 고도를 유지하기 힘든 문제를 겪었다.

에티오피아기의 추락 원인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FAA는 잔해에서 입수한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에티오피아 사고와 인도네시아 사고 사이에 유사성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니, 中에 103조 원대 일대일로 사업 무더기 제안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대외경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동참해 103조원 상당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훗 빠자이판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일대일로 관련 포럼에 참석한 뒤 20~21일 발리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중국 투자자들에게 28개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안될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911억 달러(약 103조원)” 라면서 이 중 2~3개 프로젝트는 그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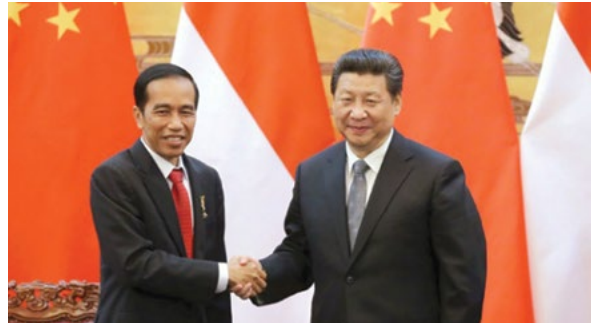
인도네시아가 제안할 프로젝트는 북(北)수마트라, 북(北)칼리만탄, 북(北)술라웨시, 발리 등 4개 주에 항구와 산업단지, 발전소, 제련소,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4개 주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역종합경제 회랑’으로 선정한 지역이다.

토머스 렘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장관은 “이 4개 지역은 중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강점을 갖고 있다”면서 “예컨대 북수마트라는 교통의 요지인 므라카 해협과 가깝고 팜오일 산업의 허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칼리만탄은 수력발전에 유리해 중국 제련소가 이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 북술라웨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투자자들은 새로 제안되는 28개 프로젝트와 별개로 이미 87억 달러(약 9조8천억원)



상당의 7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루훗 장관은 중국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류 기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현지인 노동자를 최대한 고용해야 하고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며 해당 사업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을 비롯해 일대일로 차원에서 진행되는 중국주도 인프라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152개국에서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 사업을 벌여왔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경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와 항만,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도네시아 대선 여야후보 지지율 격차 좁혀져... 접전 예고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현 대통령과 야권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릿방 폼빠스는 지난달 22일부터 12일간 전국 남녀 2천명을 조사한 결과 조꼬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한 비율이 49.2%에 달했다고 전날 밝혔다.

야권 대선후보인 빠라보위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와 러닝메이트인 산디아가 우노 전 자카르타 부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7.4%에 그쳤다.

응답자의 13.4%는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길 거부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pm 2.2\%$ 포인트다. 조꼬위 대통령과 빠라보위 총재의 지지율 격차는 11.8%포인트에 달한다.

하지만, 작년 10월 릿방 폼빠스가 진행한 같은 여론조사에선 양자의 지지율 격차가 19.9%포인트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해 9월 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릿방 폼빠스는 베이비붐 세대와 31~40세 유권자의 조꼬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사모펀드 재벌 출신인 산디아가 전 부지사가 현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비판하며 인기몰이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조꼬위 대선 캠프의 무띠아 하핏 대변인은

조꼬위 대통령이 큰 차이로 재선에 성공할 것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2014년 대선 당시보다 득표율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인 인도네시아인 시띠 아이샤가 2년 만에 말레이시아에서 전격 석방되면서 조꼬위 대통령의 재선에 ‘순풍’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꼬위 정부는 시띠가 석방된 것은 정부의 ‘로비’ 덕분이라고 공공연하게 홍보하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시띠가 피해자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만일 시띠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조꼬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시띠의 석방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을 좋게 평가하면서도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견제에 나섰다. 더 이상 조꼬위 대통령과의 지지율 차이를 벌리고 싶지 않은 속내가 보인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과 빠라보위 총재는 지난 2014년 대선에서도 맞대결을 벌였다.

당시에는 53.15%를 득표한 조꼬위 대통령이 빠라보위 후보(46.85%)를 6.2%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은 올해 4월 17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약 1억8천700만 명의 유권자가 참가해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인니-호주, 무역협정 체결 후 설탕 수입 관세 인하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가 호주와 4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인니-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을 체결한 가운데, 그 첫 번째 과제로 인도네시아의 음식업계에 서 원료로 필요로 하는 정제된 설탕(정제당)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정제당 원료의 수입 관세는 ASEAN 국가의 유사한 수입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그리고 이번 정제당 관세 인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식음료 원료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도네시아식음료협회(GAPMMI)의 아드히 룩만(Adhi S. Lukman) 회장은 “정제당의 원료는 이전에는 1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IA-CEPA를 통해 이 부분이 5%까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이 인도네시아 음식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중 하나는 국내 산업을 위해 정제당 원료의 대체적인 비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식음료 업계는 정제당 원료뿐만 아니라 밀가루와 밀, 소금, 곡물, 과일, 우유, 쇠고기 등 “호주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원료 제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관세 인하 확대 품목에 대한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인니 정부, 호주와 경제동반자 협정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대학의 피트라 파이잘 하스띠아디 경제학자는 정부가 지난 4일에 체결한 호주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피트라 경제학자는 “호주와의 CEPA는 인도네시아 무역에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트라 경제학자는 이어 “하지만 재무부가 앞서 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 협정도 35% 미만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며 “호주와의 CEP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CEPA를 통해 호주는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품의 관세를 철폐,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중 94%를 순차적으로 철폐한다. 자동차 수출과 투자 확대 등의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 등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에 발효될 전망이다. 양국의 지난해 무역액은 약 86억 달러였다.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



글; 임수지 변호사 (법무법인 원)
www.onelawpartners.com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5위의 면적(한반도 면적의 9배)으로, 주석,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등의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풍부한 자원도 무한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 있고 이러한 자원들은 환경오염 및 자연 훼손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대체 에너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한히 사용 가능하며 환경 오염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모색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의해 신재생 에너지를 23 % (788,000MW) 까지 올리려는 타겟을 가지고 있다. 현재 파리 협약을 맺은 한 나라로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탄소 배출량을 뺏어내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을 내어 놓으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에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사용관련법 규정 2017년 50호에 의하면,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재생 쓰레기, 태양광, 수력, 해수력이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회사인 PT Perusahaan Listrik Negara (Persero) (이하 PLN)와 정식

적인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해야만 한다. 또한 이 사업들은 PLN이 매년 발행하는 '10년 사업 계획' (이하 RUPTL)에 따라 전기 발전 사업 계획과 그 정책들이 구체화 된다.

태양광 에너지(P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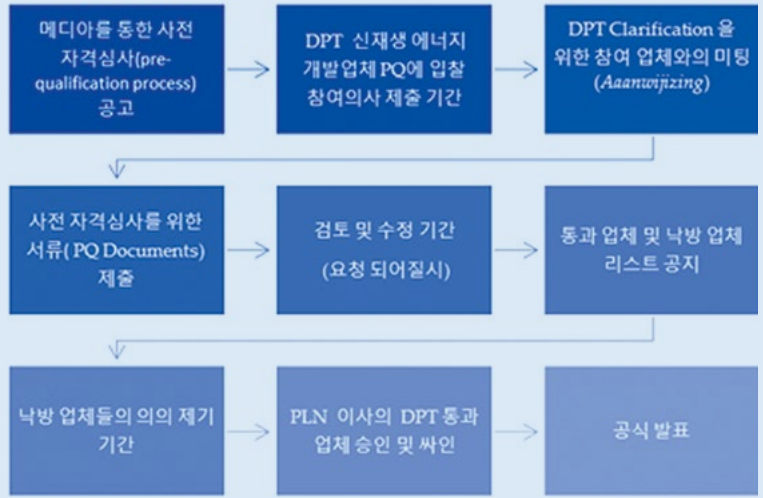
태양광 에너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프로모팅되는 에너지 중에 하나로 인도네시아의 특이한 지형, 즉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인해 낙후된 섬에 사는 지역주민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발전은 크게 On-Grid(연계형)과 Off-Grid(독립형)으로 분리되며, On-Grid 형태는 PLN에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를 띠며 가격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된다.

PLN에 공급하는 방식 또한 인도네시아법에 정해져 있으며, 그 방식과 방법이 복잡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그에 정해진 까다로운 입찰 프로세스에 따라야 한다.

입찰 방법

PLN은 에너지 프로젝트를 입찰하기 위해 세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competitive/public tender, direct selection, direct appointment.



2017년 50호 법규정에 의하며 PLN은 태양광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 ‘Direct Selection’을 사용한다. 즉 두개 이상의 경쟁자가 입찰하여 하나의 입찰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자가 입찰을 하고 태양광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PLN에서 주관하는 사전 자격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Daftar Penyedia Terseleksi (이하 ‘DPT’)에 통과 업체로 등록 되어야한다. 이 프로세스를 통과하기위해선 사전 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이하 ‘PQ Document’)을 PLN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 지원 서류들은 1) 행정 자료 2) 사업 및 회사 구성원 자료 3) 기술 및 서비스 지원 경험 4) 재무 능력에 관한 정보들로 나누어지며 이 서류들을 통해 사업자의 사업 능력, 경험 및 재무능력을 검토받게 된다.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지원자는 하나의 회사이거나 Consortium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요청되어진 자료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사업자로 등록되어진다.

이 DPT 등록제는 PLN의 웹사이트에 그의 필요에 따라 공지되어지며 프로젝트 Capacity 및 에너지 성격에 따라 Central DPT등록제와 Local DPT등록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프로젝트의 Capacity가 10 MW이상일 경우이거나 혹은 Capacity에 상관없이 태양광 및 풍력은 Central DPT등록이 필요하다. 이후 중앙 PLN 혹은 지방 PLN의 필요에 따라 RFP(제안요구)공지가 나오며 이미 DPT에 등록된 업체만이 추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력 구매 가격 (Biaya Pokok Penyediaan ‘BPP’)

여기서 전력 구매 가격이란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PLN의 전력 구매 가격은 매년 업데이트 되어진다. 이 전력 구매 가격은 사업자가 프로젝

트를 시행하는 지역의 전력 구매 가격에 따라 매년 가격이 달라지며 만약 지방전력 구매 가격은 나라에서 책정된 국가 전력 구매 가격보다 높다면 그 가격은 지방전력 구매 가격의 85%의 가격으로 책정되어지며, 만약 지방전력 구매 가격이 국가 전력 구매 가격보다 낮거나 같으면, 그 전력 구매 가격은 PLN과 협의에 의해 책정된다.

추후 당사자간에 전력 구매 가격이 결정되어지면 PLN과 사업자는 계약(PPA)을 맺게되며 이렇게 시작된 비즈니스는 BOT방식으로 이루어져 계약 기간이 끝나면 PLN에 사업을 이전하여야만 한다.

이 글의 끝으로, 인도네시아는 태양광사업을 하기에 좋은 기후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나 위에 소개된 복잡한 에너지 법과 PLN에서 주관하는 DPT 등록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라이선스 획득은 외국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끌고 나가는 과정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대형 에너지 사업개발 업체들이 많은 자본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도 인도네시아에서 에너지 사업을 쉽게 시작하기 힘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에너지 사업을 준비하는 개발업자들은 충분한 기간동안 에너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정보, 인도네시아 에너지 법 및 라이선스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비하여 시작하는 것이 추후 사업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자타르타 경제신문 공동 게재)



Tapas Club (Setiabudi)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봄바람 휘날리며~♪ 훑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이 흥얼거리는 4월이 돌아 왔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사랑하는 그대와 단 둘이 손잡고 벚꽃 놀이 가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그대가 없는 우울한 자!카!르!타!쵸...(저 봄 타나봐요 흑흑ㅠㅠ) 짜잔~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봄맞이 기분 전환을 위한 입맛 돋구기 편으로 새로운 맛, 스페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스페인인 tvN 예능 <꽃보다할배 스페인편> 방영 이후로, 한국인들에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에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 만큼이나 유명한 음식도 많습니다. 나름 자카르타에 스페인 식당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로 생긴 핫한 식당 <Tapas Club>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은 Tapas(타파스) 전문식당인데요~(음 Tapas가 뭘까요? Tapas란 스페인에서 식사 전에 술과 곁들여 간단히 먹는 소량의 음식을 말합니다.) Tapas 말고도 스페인 대표 음식인 Paella(빠에야), Churros(추로스), Sangria(상그리아) 등도 판매하니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Tapas 대표 메뉴인 Gambas Al Ajillo(감바스 알 아히요, 110,000루피아++)와 Pan Con Tomate(빵 꾀 토마떼, 30,000루피아++)로 입맛을 돋굽니다. Gambas Al Ajillo란 새우, 마늘, 올리브유로 만든 안주요리로, 보통 바게트빵에 찍어 먹습니다. 특히 감바스는 MBC 예능 <나혼자산다>에서 박나래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번엔 으깬 토마토를 발라 구운 바게트빵인 Pan Con Tomate와 곁들여 감바스를 먹었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예전에 스페인 현지에서 먹었던 맛과 흡사합니다.(역시 스페인 주방장이 직접 요리해서 다른가 봐요^^) 감바스는 오동통통한 새우가 올리브유에 푹푹 빠져있어 매우 느끼할 것 같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는 건 왜 일까요?

또 'Tapas' 하면 빠질 수 없는 Jamon(하몬, Jamon란 돼지 뒷다리햄)! 이 곳에선 Huevo, Patata Y Jamon(후에보 빠따페이 하몬, 80,000루피아++)이라는 달걀 반숙과 감자를 곁들인 하몬 음식을 팔더라고요~ 짭조름한 하몬의 맛을 달걀 반숙과 감자가 딱 잡아 줘서 술안주로 딱입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스페인 식당 중에서 하몬을 파는 곳이 드문데 이 곳에서는 팔아서 정말 반가웠어요^^

이 외에도, 스페인식 반건조 소시지인 Chorizo(초리조)를 감싼 오징어요리인 Txipirones Rellenos(치비로네스 레네노스, 80,000루피아++)도 이 곳의 추천 메뉴 중의 하나입니다.(이 메뉴, 이름 한번 발음하기 참 어렵네요... 결국엔 발음이 너무 어려워져서 메뉴 번호(23번)로 주문했어요...)

다양한 Tapas로 입맛을 돋군 다음, 메인 메뉴인 오징어먹물 빠에야인 Arroz Negro(아로 네그로, 190,000루피아++)로 맛의 정점을 찍습니다. (Paella(빠에야)란 프라이팬에 고기, 해산물, 채소를 넣고 볶은 후, 물을 부어 끓이다가 쌀을 넣어 익힌 스페인의 전통 쌀 요리를 말합니다.) 넓은 팬에 음식이 나와서 양이 많은 줄 알았지만 그건 함정이었어요... 팬이 넓기만 하고 깊지는 않아서 양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맛있으니깐 일단 합격!

디저트로 Churros(추로스, Churros란 밀가루, 소금, 물로 만든 반죽을 기름에 넣어 튀긴 스페인의 전통요리)를 먹고 싶었으나 다음 방문을 기약하며 이번엔 패스~

음식 외에도 Sangria(상그리아, Sangria란 레드 와인에 과일이나 과즙, 소다수를 섞어 차게 마시는 가향 와인)를 포함한 다양한 스페인 와인도 저렴하게 판매하니 와인 한잔 땡기실 때, Tapas Club 어떠세요? 보통의 술집은 밴드 저녁공연으로 시끄러운데 여기는 그리 시끄럽지 않아 좋습니다(그렇다고 밴드 저녁공연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한식, 일식, 중식, 서양식 모두 싫증날 때, 스페인 음식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맛의 신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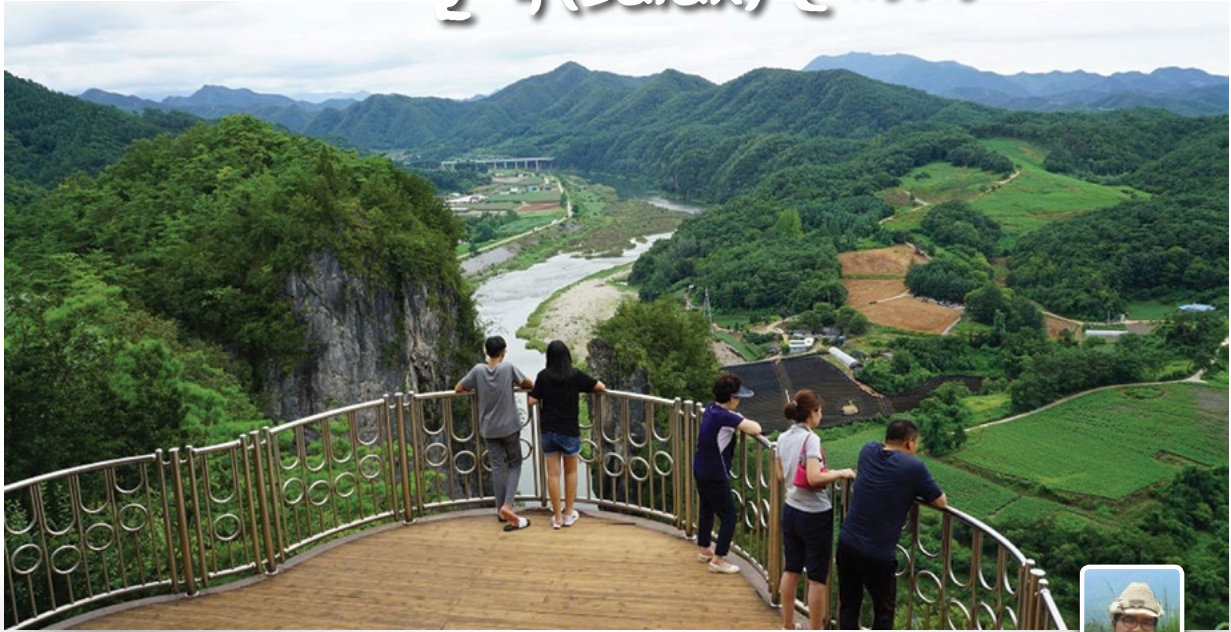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Tapas Club>

음식 종류 : 스페인 음식
가격대 : Rp 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목, 일 8:00 ~ 23:00 /
금-토 8:00 ~ 24:00
전화번호 : 021-5290-7135
위치 : Setiabudi One, Lt. Ground
Jl. HR Rasuna Said No. 62
Setiabudi, Jakarta Selatan

Zomato 참고

각한(角汗)재에서 살각(Salak)산까지



엄 재 석 / 한국문협 인니지부 부회장
Vapi21@daum.net

내 고향은 강원도 두메산골 영월군의 작은 면소재지 연당리이다. 그곳에는 기어가는 뱀 모양의 사행하천인 남한강 물줄기가 구비 치며 흐른다. 강과 강 사이에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어 가는 오솔길이 바로 각한재이다. 이 고개를 넘으면 초기 조선의 비극적인 왕위 찬탈 역사의 현장인 청령포가 나온다. 16세의 단종이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귀양을 가서 유폐되었다가 사사된 유배지이다. 앞에는 깊은 강물이, 뒤에는 천혜의 절벽 사이에 갇힌 어린 왕의 애끓는 한이 지금도 느껴진다. 이 청령포 상류에는 뽕족한 선돌이 강변에 우뚝 서서 각한재를 바라보고 있다.

각한재라는 지명에는 남 다른 유래가 있다. 옛날에는 집에서 키우는 소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소의 등에 쌀 가마니 같은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녔다.

험한 고갯길인 각한재를 넘을 때 소의 뿔에 땀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개 이름이 뿔 각(角)자에 땀 한(汗)자가 들어간 각한재가 되었다. 몸에 땀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뿔에도 땀이 난다고 하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데 이 각한재가 남들과 달리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다.

각한재 아래에서 태어난 나는 동갑내기 친구들과 같이 각한재를 오르내리며 자랐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수직 절벽 위에서 호연지기도 키웠다. 어느 순간부터 각한재의 의미를 나의 좌우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 “뿔에 땀이 나도록 힘든 각한재를 넘어 가는 소의 인내심으로 인생을 살아 보자” 하면서 어떤 난관 속에서도 목표한 바를 추구하며

살기로 다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특하기도 하다. 어린 나이에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치기 넘치는 젊은 시절부터 나의 호라며 각한재를 쓰곤 하였다. 포털 사이트에 개인 블로그를 만들 때 '각한재'로 이름도 지어 주었다. 주위에서 나를 각한재로 불러 줄 때 정말 각한재가 땀 흘리고 넘어가는 황소라도 된 느낌이였다. 이렇듯 각한재는 내 삶이 되어 오랜 성상을 함께 하며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극복하고 도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20대부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작한 나의 인생 여정이 지금의 인도네시아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보이는 살락산을 바라본다. 살락산은 자카르타 남쪽 위성도시 보고르에 있는 해발 3000미터의 휴화산이다.

이 산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 정면에서 바로 보인다. 언제 보아도 정감이 가며 아늑함을 느끼게 하는데 오늘따라 봉우리를 보는 순간 각한재가 연상된다. 그래, 여기서 안주하면 안되지. 마지막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치열하게 살자.

각한재의 황소처럼 뿔에 땀이 나도록 걸어서 마지막 정상을 넘어야 한다. 어슴푸레 밝아 오는 여명의 살락산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을 구상한다. 우선은 지난 주에 입찰한 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중부자바에 건설되는 봉제공장 건설 사업의 발주처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미팅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공사 규모도 적지 않아 수주에 성공하면 목표의 절반을 달성하게 된다. 지난 2년간의 준비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주를 위해 애쓴 임직원들의 밤샘 작업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다음에는 보고르시에서 준비하는 생활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설계를 준비하는 건이다. 이제 토목공사 업체와 합동측량도 마쳤으니 플랜트 구조물의 위치와 부지 표고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럼 전체적인 토공 물량이 나오는데 가능한 절토와 성토를 균형되게 하여 물량을 최소화시키고 싶다. 화요일에는 관계 기술자들과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제반 사항을 결정지으리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 매립장마다 포화상태로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이곳 환경의 현실이다. 생활 폐기물을 분리하여 ‘자원화’ 하는 시범사업이 성공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 조속히 보급되길 기대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준공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찌까랑의 물류창고 건설현장도 방문해야 한다. 착공부터 지금까지 별탈 없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왔지만 준공까지 챙겨야 한다. 인니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공사이기 에 잘 만들어 향후 영업에 이정표를 만들고 싶다. 작년 말에 수주한 아파트 건설 습식공사 현장에는 휴일인 어제 다녀왔다. 공정이 한창 진행되는 건

축현장의 첫 기성작업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휴일도 없이 수고하는 현장 직원들의 등을 두드리고 토닥거리며 격려해 주어야 했다.

출근길에 또 다시 바라보는 살락산, 언제인가 때가 되면 그곳에 은퇴자 촌이라도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8부 능선을 넘는 중이니 땀에 땀도 나고 등에 올린 짐이 무겁고 산길이 험해도 열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가야 한다. 각한재에서 시작한 우보(牛步 소의 발걸음)로 이제 살락산 정상에 향해 가고 있다. 오늘 저녁에 펼쳐질 살락산을 휘감는 황홀한 노을의 향연을 기대하며 나는 오늘도 자카르타 남부 위자야의 사무실로 힘차게 들어선다.

‘역사 속으로’ 문화체험 행사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역사적 의의 소개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자 ‘역사속으로 (Back to 1919)’ 문화체험행사를 3월 15일(금) ~ 16일(토) 10:00 - 16:00시 양일간 한국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개최했다.

3.1절의 역사적 의의를 소개하기 위한 체험행사로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로고 및 태극기 무늬 에코백 만들기, △유관순 열사 모형 만들기, △역사적 장소 모형 조립, △다양한 한국전통간식 시식, △태극기 부채 꾸미기, △페이스&바디 페인팅 등의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무궁화와 태극기로 장식한 포토존에서는 참가자들이 그 당시의 복을 착용하고 각자가 만든 창작기념품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세미나 시간에는 14세기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류 및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행사장 내부에서 항상 상영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제100주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포스터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의 수상작 16점 및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진전> 작품 15점을 행사장 외부에 전시하여 다양한 작품형태를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한국의 년버벌 퍼포먼스인 ‘비밥(Chef)’을 △3월 21일(목) 19시에 자카르타 소재 롯데백화점에 위치한 아이스 팰리스 콘서트홀에서 K-컬처 서포터즈, 세종학당 학생 및 한인동포 대상, △3월 23일(토) 17시와 3월 24일(일) 14시30분 & 17시30분에 스마랑 소재 디포드노로 대학교의 수다르또 강당에서 스마랑 한인회 후원으로 스마랑 한인, 한인기업 현지직원, 한류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제공: 한국문화원)



JKKS 초등 신입생 입학식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KKS, 교장 백우정)에서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3월 4일 오전 10시 본교 나래홀에서 진행된 입학식은 총 36명(남학생18명, 여학생18명)의 신입생들이 6학년 선배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5,6학년 선배들이 직접 만든 왕관과 사탕목걸이를 신입생들에게 증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입생에 대한 입학허가, 1학년 담임 및 교과 선생님 소개, 교장 선생님 환영사 및 6학년 선배들의 환영공연의 순으로 다채로운 환영행사가 진행되었다.

JKKS의 백우정 교장은 환영사에서 본교 교사들의 전문적 역량과 확대된 영어교육, 인니어, 코딩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모로서 학교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규칙을 배우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입학식이 끝난 후 1학년 단체 사진 촬영 및 축하 포토 존에서 부모님과 입학기념 사진을 찍고 입학식을 마무리하였다.

경상북도-대구광역시, 인도네시아 수출시장 진출 가속화

수라바야, 자카르타에서 잇단 무역상담회 개최
상반기중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합동사무소 개소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1일과 23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와 자카르타에서 도내 화장품, 식품, 첨단의료기기 제품 등 9개사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5백만불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대구광역시 또한 27일 자카르타에서 화장품, 안경, 식품, 치과용 의료기기 등 10개사가 참가한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무역상담회에 ㈜허니스트(탈모방지샴푸, 화장품), ㈜문경오미자벨리영농조합법인(오미자음료), 한도식품(즉석 누룽지), ㈜원소프트다임(휴대용 체성분측정기), ㈜일신산업(로이단열재), ㈜이지엠테크(LED), 제일윈도텍스(블라인드용 원단), ㈜KH화이바(부직포 소재), 현우정밀(정밀부품) 등 화장품, 식품, 첨단의료기기, 섬유, LED 관련업체로 파견업체를 구성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1:1 수출상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문경에 소재한 문경 오미자벨리(대표 박종락)는 지난 8년동안 꾸준히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린 결과 수라바야에서 화교 바이어와 즉석에서 판매망 구축에 대한 MOU를 맺고, 자카르타에서도 수출 계약을 진행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

어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오미자 음료를 곧 맛볼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포항에 위치한 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휴대용 체성분측정기를 상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참가한 바이어들이 즉석에서 샘플을 요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으며 높은 인기를 거두어 인니시장 진출을 밝게 했다.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수출경험이 부족한 지역기업들의 해외시장조사, 무역실무교육, 통번역, 해외인증 등과 함께 수출상품 기획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도와주는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역량을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를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합동사무소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합동사무소 운영으로 지역 기업들을 위한 공동마케팅을 펼치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며 해외에서 대구-경북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





바른 호흡 습관만으로 만병을 막는다

최근에 한국에는 미세먼지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호흡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한 사람과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의 차이는 잘못된 작은 습관의 차이이다.

그 중에서도 숨쉬기 습관이 그렇다.

하루 종일 코를 훌쩍이거나, 마른기침으로 고생하거나, 일 년 열두 달 감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봄철 황사, 여름철 냉방병, 겨울철 추운 날씨, 환절기의 급격한 날씨 변화 탓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감기를 앓고, 콧물을 흘리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올바르게 못한 호흡 습관에 있다. 코 호흡이 불편한 것은 호흡기관의 중심인 폐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말과 같다. 보통 사람들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처럼 숨만 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것은 미관에도 좋지 않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면역체계의 힘을 약화시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은 제 때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작은 증상들이 보여주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병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큰 병으로 진행되게 한다.

사람의 코는 공기를 들이마셔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입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위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코와 입은 각기의

역할이 다른데, 코가 해야 할 역할을 입이 대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으로 숨을 쉬면 수면장애가 온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입에 침이 말라 세균이 번식하여 충치나 잇몸병이 생기고, 치아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해 얼굴형도 변할 수가 있다. 또한 학습이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화된다.

안과나 피부과를 찾아가도 잘 해결되지 않는 증상이 계속될 때는 호흡기 질환이나 폐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잦은 감기의 원인은 약한 폐에 있다.

폐가 약해지면 피부가 충분한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여드름과 기미, 비듬, 무좀 등의 피부질환도 생긴다.

폐 기능이 활발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감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완치된다. 이때는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으므로,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입했다가 조용히 물러간 것이라고 보편된다. 그러나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도 감기 증세가 지속되면 그때는 더 이상 감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염을 비롯하여 기관지염, 편도선염, 축농증, 후두염, 부비강염, 중이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내몸 속에서 다른 호흡기질환으로 확산되어 감기보다 큰 병을 치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폐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밀어주고, 혈액 속의 오염 물질을 몸 밖으로 밀어내어 배출하는 역할까



지 해 낸다. 그러기에 폐의 기능이 활발하면 혈액 속의 오염 물질을 날숨으로 배출하면서 혈액도 깨끗하게 관리해 준다. 이처럼 깨끗한 혈액은 산소의 양이 풍부하므로 여러 가지 신체 질환도 예방해 준다. 하지만 폐의 능력이 약화되면 혈액속의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세균 및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기도 쉬워지므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폐는 우리 몸에 들어온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에 공급하고, 혈액이 운반해준 노폐물을 받아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 그 중의 일부는 피부를 통해 내보낸다.

한편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은 위장과 소장을 거쳐 소화되거나 흡수되고 남은 노폐물은 대장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설된다. 그런데 만약 폐가 약해져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면 이 노폐물에서 생기는 온갖 독소가 그대로 대장에 쌓인다. 이때 대장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독소와 노폐물은 다시 혈액에 흡수되어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 피부도 엉망이 된다. 또한 간장과 신장도 몸속을 돌아다니는 그 독을 정화하느라 혹사당하게 된다.

이 때는 폐 기능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시호흡” 등을 하면 폐활량을 키울 뿐 아니라 장 운동을 촉진시켜 폐와 대장의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는다. 폐 기능이 강화되면 코의 건강도 보장된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습관적으로 감기약이나 항생제, 해열제 등을 복용한다. 그러나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약을 복용하기 보다는 몸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휴식을 취하고 영양섭취를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좋다.

감기에 걸리는 것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 좀 쉬어달라” 는 몸의 요청이자 하소연이다. 폐가 좋지 않아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가려울 때는 비타민 C를 먹으면 좋다. 비타민 C는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다. 또 히스타민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보통 하루 2 그램 정도의 섭취를 권하는데, 천연식품으로 섭취하려면 파슬리와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신선한 채소, 딸기 등이 각종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 좋다.

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때는 반드시 누워 자도록 한다. 옆으로 자는 습관을 고쳐야만 입으로 숨쉬는 것을 막고 크게 숨을 쉴 수 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다. 밝고 긍정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이 향상된다.

또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을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건강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이 웃고 즐겁게 지내면 병에 걸릴 일이 없다.

웃으면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산소와 에너지를 폐로 듬뿍 보낼 수가 있다. 웃을 때 폐 속에 있는 세포들이 활짝 퍼졌다가 수축하면서 폐 조직의 힘을 키운다. 이런 단련과정을 통해서 폐활량이 커지고,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 또한 “노래”는 마음과 몸을 춤추게 한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긍정적인 태도”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서 이때의 안정적인 정서는 신경 전달을 통해 혈압과 호흡, 맥박, 근육에 영향을 준다. 이때 신체적, 생리적으로 좋은 영양을 받은 우리 몸은 호흡기능이 향상되면서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며 면역 물질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복식 호흡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 외에도 “박수”를 자주 치면 생기발랄한 인생으로 변한다. 박수는 열 손가락에 자신의 기운을 모아서 힘차게 치는 것으로 보통은 격려와 축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손바닥을 맞대며 소리가 나게 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요즘은 건강을 위한 생활요법으로 박수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박수의 종류도 다양하게 개발되는 편이다. 박수를 치면 손바닥에 있는 경혈을 부분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다. 폐활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숨을 길고 깊게 쉬는 것이 중요하다.

숨을 깊게 쉬면 마음까지도 평온해진다.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호흡으로, 호흡할 때의 산소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폐가 건강해진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한다”는 말이 있다.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실내 환경을 위해

1. 하루에 2~3회 3분 이상 창문 활짝 열기
2.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를 수시로 교체하기
3. 실내 공기정화 식물 기르기
4. 천연 방향제 및 천연 탈취제 사용하기
5. 카펫 없애기 등이 건강에 이롭다.

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몸속에 최대한 많은 산소를 받아들여 폐와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관의 조직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유산소 운동의 특징이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등산,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에어로빅, 마라톤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폐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등산”이다.

등산을 하면 숲 속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게 되고, 적당히 땀을 흘리므로서 피부의 노폐물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생활 습관”으로 내 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1. 생활 속 틈틈이 심호흡하기
2. 하루에 세 번 큰 소리로 웃기
3. 소리 내어 노래 부르기
4. 실내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
5. 담배 끊기
6. 육류 대신 해조류나 채소 섭취하기
7. 약차 마시기
8.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하기
9. 콧구멍 세척하기
10. 온 몸을 활력 넘치게 하는 목욕하기
11. 긍정적인 마음 가지기 이다.

꼭 실천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자.

자료 출처: 입으로 쉬면 병에 걸린다 (서효석 평강 한의원 원장)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제공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에서 한국 유학 특강 개최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외국인 유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8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14만 2205명에 달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 또한 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이하 KSIC) 수강생 중 한국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KSIC는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유학생을 초청하여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 유학 특강을 마련하였다. 행사는 지난 3월 18일(월)에 KSIC 문화체험실에서 열렸으며, 외부 일반인과 KSIC학습자 60명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특강은 각기 다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각기 다른 분야를 공부한 세 명의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먼저 Febryanty Putri(페브리안티 뿌뜨리)는 포스코청암재단 POSCO Asia Fellowship 장학 프로그램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Devi Marietta(데비 마리에타)는 실험실/교수 장학 프로그램(Laboratory Scholarship)을 통해 부경대학교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였다. 마지막으로 Nurlia Magitha(누를리아 마기타)는 정부초청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였다. 각기 다른 전공의 세 학생이 행사에 모인 학생들을 위해 자신이 졸업한 대학 및 학과를 소개하고 혜택을 받은 장학금 프로그램

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그 밖에 한국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뜨거웠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여러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 동안 한국 유학 생활 관련한 궁금증을 풀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의 인스타그램(ksic.indonesia)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다음 달에 또 진행해주었으면 한다”, “자카르타 외 도시에도 방문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번 한국 유학 특강 행사는 각기 다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각기 다른 전공을 한 인도네시아 유학생을 초청하여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학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거점 세종학당으로서 현지 한국어 교육 촉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SIC는 행사에서 제기된 의견 중 “다음 기회에는 다른 전공 졸업생도 초대했으면 한다”는 의견과 “학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을 더 많이 초대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더 다양한 유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공: 인니거점 세종학당)



나는 바하사로 수다떨다

민선희 (자카르타 거주)

‘어쩔 이렇게 과량고 예쁠까’ 쨍쨍한 인도네시아 하늘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미세먼지를 핑계 삼아 집에 콕 틀어 박혀 외식생활을 하고 왔답니다. 자카르타에서도 사실 창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살지만, 째짤이 파란 하늘을 만끽하며 잠시라도 걸을 수 있다는 데 감사해야지 싶더라고요.

이번 호에 나오는 멜리사(Melisa)는 발리에 사는 친구인데요. 멜리사네 어머니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놀러 갈 계획을 세웠는데 글썄 사니가 미세먼지 때문에 극구 말리네요. 우리나라 관광 홍보 대사는 못 될지언정 친구가 놀러 가겠다는 걸 막아서는 안 되는데.. 과연 멜리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될까요? 바하사로 수다 떠는 그날까지 열공~!

미리 보기

미세먼지 debu halus

(상황이) 심각하다 parah

(눈이) 따갑다 perih [쁘리ㅎ]

마스크 masker [마스꺼르]

아무데도 안 가다 enggak ke mana-mana

숨쉬기 어렵다 susah (ber)nafas

바하사로 수다 떨기

Melisa : Sani, bulan ini aku mau jalan-jalan ke Korea bareng ibuku.
사니, 나 이번 달에 우리 엄마랑 한국 놀러가려고.

Sani : O ya? Enak banget~~ Eh, tapi sekarang banyak debu halus lo.
아 그래? 완전 재밌겠다~~ 앗, 근데 요새 미세먼지 많은데~

Melisa : Debu halus? 미세 먼지?

Sani : Iya debu halus itu kayak fine dust gitu.. Saking banyaknya debu, mata bisa perih sampai susah bernafas. Jadi kamu harus pakai masker.
어, finde dust 라고... 너무 많아서 눈도 따갑기도 하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야.
마스크 써야 돼.

Melisa : Aduh... terus gimana dong? Rugi kalau cuman di hotel doang.
아이고..... 그럼 어떡해... 호텔만 있기는 아깝고(손해고)...





Sani : Udah beli tiket, belum? (비행기)표 샀어?

Melisa : Belum sih... Ibuku pengen lihat bunga sakura. Sampai dia hafalin bahasa Koreanya, beotkot.. beotkot gitu... haha
아직 안 사긴했는데.... 우리 엄마가 사쿠라 너무 보고싶어 해서..
한국어로 벚꽃, 벚꽃 이러면서 외우고 계셔 하하하

Sani : Wah.... salut banget. Kalau ibumu mau lihat bunga, ya.....harus bulan ini sih... Aku kan baru habis dari Korea kemarin Mel, sekarang parah banget.... Aku aja enggak ke mana-mana kemarin soalnya setiap mau pergi, parah banget debu halusnya di berita.

(kirim foto di WA) Coba lihat tuh... orang pada pakai masker...

와.... 어머니 대단하시다(존경스러움)... 꽃 보고 싶으시면....이번 달이 딱이긴 한데..
나 한국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땀. 요새 진짜 심하거든. 나도 아무데도 안 갔어.
어디 좀 가려고 하면 뉴스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이라고 해서.
(왓츠앱 사진 보냄) 봐봐... 다들 마스크 쓰고 있잖아.

Melisa : Wah... Apa mendingan ke Jepang aja, ya?
와..... 일본 가는 게 나올까나?

Sani : Hmm di Jepang juga bagus sih... tapi tercemar radioaktif....
음.... 일본도 괜찮긴 하지..... 근데 방사능 오염됐잖아...

Melisa : Ah Sani... nakut-nakutin aja... nunggu tahun depan saja kali ya...
sambil nabung..
야아~~ 괜히 겁주고 있어 너~~~저금하면서 내년까지 기다릴까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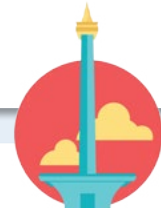
[돋보기] pada

‘pada’ 는 행사나 시간, 어떤 대상 앞에 오는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말로 ‘다들’, ‘같이 ~하다’ 로 쓸 수 있는 부사어 기능도 해요. 아래 예문 ④,⑤번을 눈여겨 보세요.

- ① Aku cinta padamu. 난 너를 사랑해.
- ② Acara itu akan digelar di gedung utama pada jam 4 sore.
행사는 오후 4시에 본관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 ③ Pada kesempatan ini saya menyampaikan ucapan terima kasih kepada semua relawan.
이 자리를 빌려(이 기회에)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④ Mereka pada kabur. 개네들 다들 도망갔어.
- ⑤ (멜리사가 발리의 특산품인 파이 수수(pie susu)를 사니에게 주면서 한국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한 상황)

Melisa : Gimana Sani, teman-temanmu suka enggak pie susunya?
친구들이 파이 수수 좋아하디? 어때?

Sani : Suka banget. Mereka pada nanya beli di mana...
완전 좋아했어..어디서 샀는지 다들 묻더라.



saking ~ nya

- ① Ando : Gue kemarin berjam-jam cari mobil gue di pakir.
Saking capeknya, gue langsung tepar di kasur.
저번에 주차장에서 차를 몇 시간을 찾아다녔지 뭐야.
하도 피곤해서 침대에 바로 기절했었어.
Sani : Capeknyaaa.. Makanya, lain kali kamu foto aja biar ingat.
어후 얼마나 피곤해 그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진을 찍어. 안 까먹게.
- ② (한국에 사는 Apung은 겨울이 너무 건조해서 자주 코피가 나요)
Apung : Sani.... aku sering mimisan....
사니... 나 코피 자주 흘러
Sani : Kasihan... saking keringnya ya.... Di rumah ada humidifier, enggak?
안됐다 어찌니.. 너무 건조해서 그렇구나... 집에 가습기 있어?
Apung : Udah ada.. tapi enggak ngaruh.
있는데.... 별로 소용없어

바하사 써먹기

◆ 르바란 때는 어디 멀리 가는 거 보다 집에 있는 게 나아.

Kalau Lebaran, mendingan di rumah saja daripada pergi jauh-jauh.

◆ 자카르타는 공기 오염이 심해요.

Polusi udara di Jakarta parah.

1. 교통혼잡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게 막힌다)

2. 많이 아픈가요? (병환이 심한가요?)

Macetnya parah banget.

Sakitnya parah kah?

◆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Semalam aku susah tidur.

여긴 주차하기가 어려워.

Di sini parkirnya susah.

◆ 오늘 날씨 너무 좋다.

Hari ini cuacanya enak banget.

1. 바람 정말 시원하다.

Adem banget.

[아름] (바람이) 시원한

2. 오늘 하늘 진짜 맑다.

Langitnya cerah sekali.

3. 웬일로 하늘이 이렇게 깨끗해(파랳데)? (맨날 어둡다가)

Tumben, langitnya biru banget. (Biasanya mendung)

mendung (하늘이) 구름낀



미래를 조각하는 사람들

즈빠라 한인회는 원목 가구를 생산하는 한인 중심으로 움이 튼 한뜻의 공동체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가구 산업의 문제를 이태리 가구 등 유럽가구처럼 공동 마케팅을 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가구 산업의 불황속에서도 다행히 즈빠라의 현 주소는 한인들의 가구 사업 진출 30년의 역사속에 생산 기술과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좋은 원목 수급 장수 상생 네트워크로 수출에 문제가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3월11일 자카르타 나들이의 첫 만남은 땅그랑 한인회였다. 땅그랑 까라와저 피낭시아 한인회 사무실에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 채만용회장과 수석 부회장 등 한인회 임원진이 맞이했다.

즈빠라 한인회 가구 사업부(김태영 가구사업부장)과 김신 회장은 땅그랑에 상설 매장을 열고 먼저 팩토리 아울렛 가구 상설매장을 열어 동포들에게는 공장 직영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을 시작으로 로컬과 세계시장 마케팅 확대의 거점으로 삼을 것을 밝혔다.

즈빠라 한인회는 결손가정 없는 온전한 한인 다문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저빠라 한인회는 동병상련 결손가정이 많은 땅그랑 한인회 무지개 공부방에 관심을 가지고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땅그랑 다문화 가정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하고 땅그랑 한인회는 한인동포들에게 가구를 저렴하게 보급하게 되는 부분에 감사와 아울러 저빠라 한인회가 추진하는 과제인 공동 마케팅의 첫삽인 땅그랑 상설 매장의 성공을 바랐다.

두번째가 한국 문화원 방문은 천영평 원장과의 만남이다.

즈빠라 한인회는 올해 9월에서 10월중에 저빠라 시민광장에서 2000명 이상 참석 예정으로 k-pop 경연 대회를 한다. 천영평 원장은 저빠라 한인회의 열정적 활동과 꿈에 뜨거운 관심과 올해의 경험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적극 후원과 협조의 길을 모색하고 한국 문화 전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꼬마요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가구 박람회다. PT Ritz Gallery(박호섭고문)의 흑단가구 외에 풍차 카페와 도마를 비롯한 가구들이 박람회에 출품되며 인도네시아의 생산 가구및 외국계 가구업체들이 출품한 가구의 디자인을 일일이 돌아보며 가구 사업의 미래와 마케팅에 대한 길을 모색했다.

오후 3시에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 김창범대사를 만났다. 김신 회장으로부터 즈빠라 한인회관 건축 현황과 가구 사업의 꿈 그리고 한글학교및 다문화 가정의 현주소를 알렸다.기업들의 중부 자바 투자 바람으로 즈빠라의 한인수가 가구업 종사자 70여명에서 300여명 이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은 발전소 설립, 파크랜드, 화승나이키 등 신발 산업을 비롯해 풍국 스타캠 등 봉제의 투자도 늘고 있음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고국 비자 발급의 어려움과 행정의 문제점을 알렸다. 근본적 문제 해결의 행정절차 개선의 답은 못 받는 아쉬움이 있지만 김창범 대사의 특별 조치로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근본적 해결의 길이 꼭 열리길 바라는 마음이다.

즈빠라 한인회는 한인수의 증가 추세에 앞서 다문화 가정 정착, 한인회관 건축, K-Pop 경연대회, 가구 공동마케팅 등 한인회의 바람직한 상으로 변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신진 투자 기업들의 CSR 사업의 분을 보이고 장을 열어 인니인들과 상생하는 바람직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제공: 즈빠라 한인회 이태복작가)

시험기간 중의 휴식



(학생기자 JIS 신재우)



최근에 지스(JIS)에서는 12학년 학생들이 거쳐야 하는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영어로

는 목(Mock) 시험이라고 하고 아이비(IB) 학생들이나 에이피(AP)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2주 동안 시험을 보게 된 이후에 방학 동안 대부분의 12학년 학생들은 발리로 가서 고등학교의 마지막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12학년들에게는 전통이 되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과 선생님들은 가끔씩 걱정을 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험을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긴장을 늦추고 발리를 가야하기 때문에 너무 집중이 안될 것 같다는 의견과 힘든 모의고사 이후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학생과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질문: 대부분의 12학년 학생들은 발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 힘든 모의고사를 끝낸 이후에는 뇌는 좀 쉬어줘야 합니다. 반복되는 공부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최고의 결과를 못 이루어 냅니다.

선생님: 모의고사가 지나고 나서 1달 이후에 바로 학생들은 실제 시험을 학생들은 치루게 됩니다. 정신상태가 발리에 대한 생각으로 공부에 방해를 받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안되고 실제 시험도 망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실제 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도 더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질문: 학생들은 발리에 가서 사고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 발리는 자카르타보다 아주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사고들이 종종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관리들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고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생님: 발리는 자카르타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들이 좁기 때문에 차 사고도 생길 수가 있으며 도난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므로 더더욱 학생들에게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발리에 가는 것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며 위험한 사고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휴식이 학생들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 타이밍을 휴식으로 인해 놓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토지법(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9. 소유권(Hak Milik/HM)

9.1.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속되는 권리이다.

9.2.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외국인이 상속 혹은 결혼의 결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시에는 취득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3. 이중 국적 보유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다. 이중 국적 보유자는 이중 국적 보유시점으로부터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5.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담보 능력이 있다).

9.6.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9.6.1.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9.6.2. 소유권 보유자가 국가에 반납한 경우

9.6.3. 장기 간 방치한 경우

9.6.4. 상술한 “9.2.” 항 혹은 “9.3” 항에 해당되는 경우

9.6.5. 지진, 화산폭발,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10. 경작권(Hak Guna Usaha/HGU)

토지 자체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 어업 및 목축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에 경작권을 허용한다.

10.1.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가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경작권 보유를 허용한다.

10.2. 경작권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오) ha 이상이어야 하며 25(이십오) ha 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경작권 면적은 최대 25(이십오) ha까지이며 법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면적은 중앙 토지원장이 정한다.

10.3. 경작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삼십오)년, 연장 최장 25(이십오)년, 갱신 최장 35(삼십오)년이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초 최장 35(삼십오)년과 연장 최장 25(이십오)년 및 갱신 35년을 합쳐 최장 95(구십오)년을 동시에 줄 수 있다.

10.4. 경작권은 자유롭게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할 수 있고 담보 능력이 있으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10.5. 경작권 보유자의 의무

10.5.1. 국가에 법정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10.5.2. 경작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경작권 부여 목적에 맞는 농업, Plantation, 수산업 혹은 목축업을 해야 한다.

10.5.3. 관계 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경작권 보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10.5.4. 경작권이 부여된 토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및 환경 시설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10.5.6. 토지 비옥을 유지하고 자연 지원 파손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10.5.7. 경작권 사용에 대하여 매년 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5.8. 경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10.5.9. 경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경작권 등기 권리 증서를 발급기관인 토지원에 반납해야 한다.

10.6. 경작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10.6.1. 경작권의 시효가 경과한 경우

10.6.2. 법정 의무 사항 불이행 혹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 유권 기관에서 강제로 취소한 경우

10.6.3. 경작권 시한 만기 전에 경작권 보유자가 자진 반납한 경우

10.6.4.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경우

10.6.5. 경작권 취득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 방치한 경우

10.6.6. 지진, 화산폭발,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10.6.7. 경작권 보유자가 법정 보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경작권은 대규모 토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대규모 토지를 최초(35년), 연장(25년) 및 갱신(35년)하여 토탈 95년간 확보가 가능하다.

11.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축권이라고 한다. 공장, 창고, 사무실 빌딩, 주택,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이 건축권이다.

11.1. 건축권 보유 가능성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지사,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외국인, 인도네시아 사업자일지라도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 Joint Operation에게는 건축권 보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법인자격을 획득한 주식회사, 재단 혹은 조합에게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지분의 100%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외자투자회사에게도 법인자격을 획득하면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거나 법인자격을 상실하면 1(일)년 이내에 건축권을 유자격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일)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건축권이 실효되며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현실적으로 재단법 발효 이후 정관을 새 재단법에 따라 개정하지 않은 재단 및 새 주식회사법 발효 이후 새 주식회사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법인 자격을 상실한 재단 혹은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으며 건축권의 보유자인 법인이 법인자격을 상실해버려서 건축권 자체가 법리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매매는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국가 소유 토지, 개발권 토지 혹은 소유권 토지에 건축권을 줄 수 있다.

소유권 토지에 대한 건축권 부여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ejabat Pembuat Akta Tanah)에 의해 토지 소유자와 건축권 신청자 간에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중앙 토지원장이 부여하며 건축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1.3. 건축권 유효 기간

건축권은 최초 최장 30(삼십)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최장 20(이십)년 연장이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최장 30(삼십)년 갱신이 가능하다. 투자 목적 건축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연장 20년, 갱신 30년 토탈 80(팔십)년을 일시에 줄 수 있다.

11.4.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조건

11.4.1.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을 한 토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건축권 보유자의 법적 신분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혹은 법인이어야 하고 대상 토지가 국토 이용 계획서 상으로 건축권 부여에 문제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

11.4.2.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늦어도 건축권 만기 2(이)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11.5.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

11.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는 건축권 취득세는 5%이며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1.5.2. 토지 건축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결정서에 있는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며 환경 훼손이 없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11.5.3. 건축권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원본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11.6. 건축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1.7. 건축권 토지를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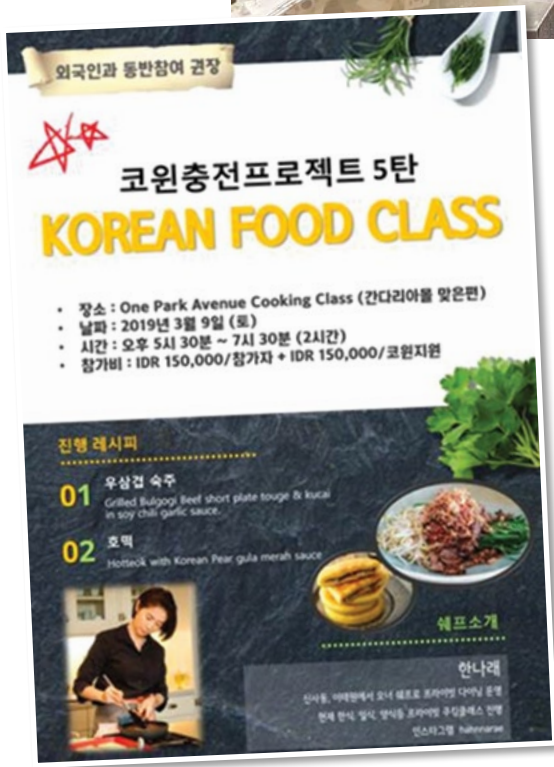
11.8. 건축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11.9. 건축권 실효

건축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권 만기일이 되면 건축권은 실효된다. 따라서 건축권 토지(부동산)를 매입 시에는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건축권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권은 실효하며, 건축권 보유자가 만기일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도 건축권이 실효되며, 공익을 위해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실효되며, 건축권 보유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고 1(일)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효되며, 건축권 보유 법인이 법인자격을 상실한지 1(일) 이내에 건축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권은 실효된다.

(다음 호에 계속)

Korean Food Class 코원충전 프로젝트



코원 인도네시아 지부(담당관 이희경)는 2019년 3월9일(토) 간다리아에 소재한 One Park Avenue에서 회원들의 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식 요리교실을 열었다. 간편한 손님 초대 요리로 우삼겹 숙주와 호떡으로 구성된 한식 코스 소개는 자카르타의 소문난 요리강사인 한나래 셰프가 맡아주었다. 이날의 강습이 특별한 것은 참가를 희망한 회원들에게 외국인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배우는 컨셉이었기 때문이었다. 코원 회원들은 이 날의 강습이 인도네시아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코원 인도네시아식의 한식의 세계화라 자평하였다. 한편 회원의 게스트로 참여한 인도네시아인 첼시(Chelese)는 코원 인도네시아의 한식 강습이 체계적이었고 유익하여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I attended the cooking class hosted by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last Saturday and I was delighted to have had a chance to participate. Chef Han did a wonderful job explaining the method of cooking Bulgoggi Salad and Hotteok in Korean and English – while another member of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translated her instructions for the Indonesian participants.

The whole sessions was very well organized, from starting punctually to ending on the dot as well. The ingredients used were very generous and of good quality. The clean up was also handled in a polished manner. Overall, I enjoyed the cooking session as it allowed me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cuisine and culture.

(제공: 코원)

제 5차 MAJU SATU LANGKAH



한인청년회의 제 5차 MAJU SATU LANGKAH (한걸음 앞으로) 행사를 인도네시아 최대 Media Group인 MNC Group의 Media CEO인 Mr. David Fernando Audy와 INEWS Building에서 2019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회장 정제의 및 KIYA 회원들과 가졌다.

한인청년회 행사에 MNC Media CEO, INews TV, RCTI 및 MNC Media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인청년회 회원사와 MNC Media의 협력 관계 모색, MNC Group소개, MNC Media 방송국

견학 및 INews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 졌다.

이 자리에서 Mr. David 사장은, MNC GROUP은 Media, Finance, Property 3개의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룹이며, 한인청년회 관련 업체가 협업 및 도움이 필요할 때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 그리고 한국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좀더 많은 투자와 Media 관련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제공: 한인청년회)



서미숙 작가와 함께한 코린도 기업 문학특강 '문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지난 2월 21일, 인도네시아 대표 한인 기업인 코린도 빌딩 14층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미숙 작가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와 함께한 기업 문학특강이 열렸다. 이날의 특강 주제는 <문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코린도 그룹 임직원들과 한국문협 인니지부 임원들도 함께 참석한 문학특강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문학이란 무엇인지를 여러 정의를 들어 설명하였고 과연 문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차고 재미있게 소개해주었다. 우리 삶에서 문학을 접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강연할 때는 참석자들 모두 힐링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서미숙 작가는 올해 삼일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문학사의 큰 별인 윤동주 시인의 짧았던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윤동주 시인의 대표 시<서시>를 참석자들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필가로서 오랜 세월 활동하다 올해 초, 첫 시집 <적도의 노래>를 출판한 서미숙 작가는 우리 삶에 위로가 되는 간략한 시 쓰기 방법을 소개하였다. 시가 어렵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시를 접하고 쉽게 창작하는 시창작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석자들 모두 쉽고 감동적으로 시를 공감할 수 있도록 시집<적

도의 노래> 중 직접 체험했던 심정을 표현한 시 <장례식장에서><하늘에 그리움 걸린><인내>를 직접 낭독하였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을 마음에 있는 서정을 입혀서 시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며 용기를 주었다.

이어서 서미숙 작가는 노래로 만들어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 음악을 소개하였다.

한국대표 서정시인인 정호승 시인의<풍경 달다>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노래로 따라 부르는 시간도 가졌다. 특강의 마지막 부분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서미숙 작가의 시집 <적도의 노래>에 수록된 시를 참석자들이 직접 낭독해 보는 시간이었다. 시집의 표제 시이기도 한 <적도의 노래>,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두 나라><인생의 법칙> 그리고 <두리안>등, 27년간 타국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를 함께 감상하며 공감할 수 있었다.

서미숙 작가는 기업인들이 힘들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솔로 위로를 받지 말고 자신만의 감성으로 문학적 시쓰기를 통해서 마음에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삶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사람은 문학으로 산다' 는 메시지를 통해 문학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날의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기사제공 : 한국문협 인니지부 사무국)

2019년 제100회

대한민국 전국체육대회 볼링선수 선발대회

* 참가자격

인도네시아 3년이상 거주 대한민국 국적 만18세 이상 전국체전 결격사유 없는자
10월4일~10월10일까지 (7일간) 서울 특별시 전국체전에 참가 가능자.
4월 5일 이전 볼링협회 가입자 (비회원 참가 가능하나 선발 및 시상 제외)

* 참가 신청

2019년 03월 20일 ~ 2019년 4월 5일 16시 30분 까지 마감
* 협회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함 (협회비 일시불 년 100만 루피아)

* 신청 접수처 (참가신청 가능한 E-mail 요망)

사무국 Mobile 0858-1126-2163 & 사무국장 Mobile 081-1163-5876
E-mail : aiden.na@justintime.co.id

* 선발 경기대회

일시 : 2019년 4월14일(일요일) 오후 2시 부터
게임 : 8게임 토탈점수

* 경기대회 장소

JAYA ANCOL BOWLING CENTER : Jl.Lodan Timur Ancol-Jakarta Utara
TEL : 021-6471-0124

* 참가비용

회원 : 대회 관련비용 협회에서 지원
비회원 : 30만 루피아
55,000RP * 8게임 = 440,000RP (140,000RP 볼링협회에서 지원)
(공통 : 대회 후 저녁 만찬 재-인도네시아 대한볼링협회 에서 제공 합니다.)



남자선수 6명 & 여자선수 6명 선수 전체12명 선발
이며 본 경기대회 시상 및 선발 선수는 男-女 각각 1위 2위 3위 까지
시상 및 확정 선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미-확정 선수 男-女 각각 3-명씩을
재 인도네시아 대한볼링협회 회장 및 임원이 추천한자를 중심으로 임원회의를
거쳐 2019년 5월15일 전후로 최종 확정 발표함

문의사항

재-인도네시아 대한볼링협회

사무국

Mobile 0858-1126-2163 으로 문의바람.

"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대한볼링협회



정원관리사 Bpk Nawil (46세)

나는 뽕쫄란 완전 토박이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때는 여기가 전부 논밭에다가 나무도 아주 많은 숲같았지요.
아버지로부터 화초가꾸기를 배워 이곳에서 화초상을 한 지는 약 10여년 됩니다.

화초 팔아 봐야 얼마 안돼요. 월 2-3백만 정도...

거기에 동네 큰집들 정원 관리 해주고 마을 행사 있으면 도와 주고 가끔 자가용 영엄 알바도 뛰면서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애들은 아들만 셋인데 중학생 큰 아들이 한국 영화 무지 좋아하던데... 난 잘 몰라요.

소망이라면 우리 애들 잘 자라도록 끝까지 돌봐 주고 커서 존경 받는 의사 선생님이나 종교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큰애가 아주 똑똑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길가 우리 집이 약 100m² 정도 되는데요. 여기 땅값이 46년간 엄~청 올라 지금 m² 당 2천만 아니 2백만 아니 2천만인가... 암튼 무지 올라 기분은 좋아요. 하하하~

<편집국>

2019 임원산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19.2.28 ~ 3.29.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9	이한주 이사	PT. SAJI SEGAR LESTARI	14,000,000		2018
10	이정휴 이사	PT. GEE SAN INDONESIA	14,000,000		
11	김영욱 자문위원	PT. GAYA INDAH KHARISMA	14,000,000		
12	정용완 이사	PT. HUNG A INDONESIA	14,000,000		
13	이상일 이사	PT. UNGARAN INDAH BUSANA	14,000,000		
14	김준규 고문	PT. CIPTA ORION METAL	70,500,000		
15	강덕재 명예고문	PT. LEMBU SWANA PERKASA		5,000	
16	이정호 이사	PT. KORNET INDONESIA	14,000,000		
17	구종율 자문위원장	PT. JASINDO DUTA SEGARA	28,000,000		
18	김경곤 이사	PT. SUKWANG INDONESIA	14,000,000		
19	김영만 자문위원	PT. BATAVIA CHEMTEX	14,000,000		
20	서영률 이사	PT. PRATAMA ABADI		1,000	
21	이현상 자문위원	PT. ROYAL KORINDAH	14,000,000		
22	박성대 부회장	PT. HANJIN INDONESIA	70,500,000		
23	양태화 이사	PT. BOSUNG INDONESIA	14,000,000		
24	이광옥 부회장	PT. YUNI INTERNATIONAL	70,500,000		
25	김희년 수석부회장	PT. AITI INVESTMENT	141,000,000		
26	최정남 자문위원	PT. GLOBAL FIBERINDO	14,000,000		
27	이옥찬 이사	PT. KORINA SEMARANG	14,000,000		
28	김호권 이사	PT. SUNSHINE TECHNICA	14,000,000		
29	임진섭 이사	PT. ALIMINDO	14,000,000		
30	박기현 이사	KOREAN AIRLINES	14,000,000		
31	임동진 이사	PT. INKO SINAR MEDIA	14,000,000		
32	김옥준 이사	BSI GROUP	14,000,000		
33	채만용 자문위원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34	하재수 부회장	PT. ROYAL PUSPITA		5,000	
35	이명균 이사	PT. HIJAU ELEKTRONIKA IND.	14,000,000		
36	노태진 이사	PT. SILLA ENGINEERING IND.	14,000,000		
37	유진상 이사	PT. DAZ BAEK	14,000,000		

2019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부일순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연도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연도
35	이한주	600,000	2017-2018	40	김영욱	300,000	
36	김애순	300,000		41	김준규	300,000	
37	이정휴	300,000		42	강덕재	300,000	
38	정용완	300,000		43	이정호	300,000	
39	이상일	300,000		44	구종율	300,000	
				45	김경곤	300,000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연도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연도
46	김영만	300,000		57	구본식	300,000	
47	승은호	300,000		58	강희중	300,000	
48	서영률	300,000		59	임진섭	300,000	
49	이현상	300,000		60	임동진	300,000	
50	박성대	300,000		61	김옥준	300,000	
51	양태화	300,000		62	채만용	300,000	
52	이광옥	300,000		63	하재수	300,000	
53	김희년	300,000		64	이명균	300,000	
54	최정남	300,000		65	황윤홍	300,000	
55	이옥찬	300,000		66	노태진	300,000	
56	김호권	300,000		67	유진상	300,000	

 **한.인니 문화연구원** www.ikcs.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양승윤교수와 함께하는 특별 세미나 왜 동남아인가, 왜 인도네시아인가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14:00-16:00

강의 개요

- ① 세계 역사는 항상 전향적으로 변화한다. 세계사의 중심축도 변화한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다시 미국에서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다.
- ② 문제는 경제다. 냉전체제 하에서 세계경제 요소는 자본과 기술이었다.
탈냉전시대에는 자본, 기술 이외에 자원, 시장성, 노동력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후자는 모두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다.
- ③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맹주다. 한국과는 상생관계에 있다. 한국문화를 좋아한다.
무엇이든지 한국만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한반도 4강 외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가자마자대학교 사회과학대 강의교수
저서: 『인도네시아사』 『바다의 실크로드』 등 다수
- 장소: KOTRA 세미나실 Wisma GKBI, Lantai 8 Suite 801
Jl. Jend. Sudirman Kav. 28 (021-5741522)
- 신청: 밴드맺글 <https://band.us/@ikcs>
(SMS/KT) 0815-1901-0570 / 0838-7834-7811 (ID:ikcskr)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한국인 직원 구인 / 구직 적극 지원
아래 주소로 이력서 송부 바랍니다

✓ **急**한데 .. 유능한 人材 어디서 찾나 ?

✓ **힘**드네 .. 쓸만한 사람 그렇게 없나 ?

✓ **費用** .. 들어도 좋은 직원 없을까 ?

Recruitment Service



Korea Desk
0878-8042-9794
021-572-7214
hwangyh@os-selnajaya.com
www.os-selnajaya.com/en

domestic : Karawang, Cikarang, Bandung, Surabaya, Cibubur, Lembang, Jakarta : 19th fl. Mid Plaza II, Jl. Jend. Sudirman Kav 10-11 Jakarta, Indonesia
overseas : Vietnam, Malaysia, Singapore, Cambodia, China, Japan, HK, India, Australia, Germany, Belgium, Poland, UK, Chile, Peru, Brazil, Colombia, Ecuador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 PRE-UNIVERSITY



Equipping you with the skills & mindsets to face the world beyond

- ✓ Transformational
- ✓ Internationally Accredited
- ✓ Caring & Serving
- ✓ Focused on Character Building
- ✓ Industrial Exposure
- ✓ Teamwork Cross Cultural Boundaries
- ✓ Nurturing Excellence : Academics & Beyond

"SO THAT WHATEVER COMES WILL HAVE A TRANSFORMED LIFE"

OPEN REGISTRATION
For New Academic Year

South Jakarta Campus:
T: +6221 7590 8850

West Jakarta Campus:
T: +6221 581 2228

Ichthus Schools Ichthus School www.ichthuschool.com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재)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승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닷컴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가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브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아)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브찌까랑)	081314157581	
가당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동지 하숙	3608	9316
리브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에썸드라아트스쿨(리브찌까랑)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포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숄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워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HP. +62-816-873-176, +62-816-1390-333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E-mail. 3spearl@hanmail.net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82-10-5509-7751, +82-10-9824-8857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2018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혜정 공연 수석부회장/JKCC 어린이 합창단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루시 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0815 1941 1756
헤리티지코리아안섹션 대표 : 김상태, 김혜정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9. 2. 27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한인회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윤 재 응	0813-1921-5720
		사무차장	윤 병 결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석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이 경 윤	0811-332-4001
		수석부회장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배 석 기	0816-1844-165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문 창 윤	0822-2220-8123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망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13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www.samtan.co.kr

THEP

TRASINDO

SAMINDO

PSG

CEP

SBS

DONGHAE

SIMS

MINTEC

SRT

ABM

KIDECO



GLOBAL LEADING COMPANY
IN RESOURCE & ENERGY

